'L'을 먹는자가 이긴다

metro®
메트로 2015년 8월 4일 화요일 제3272호 www.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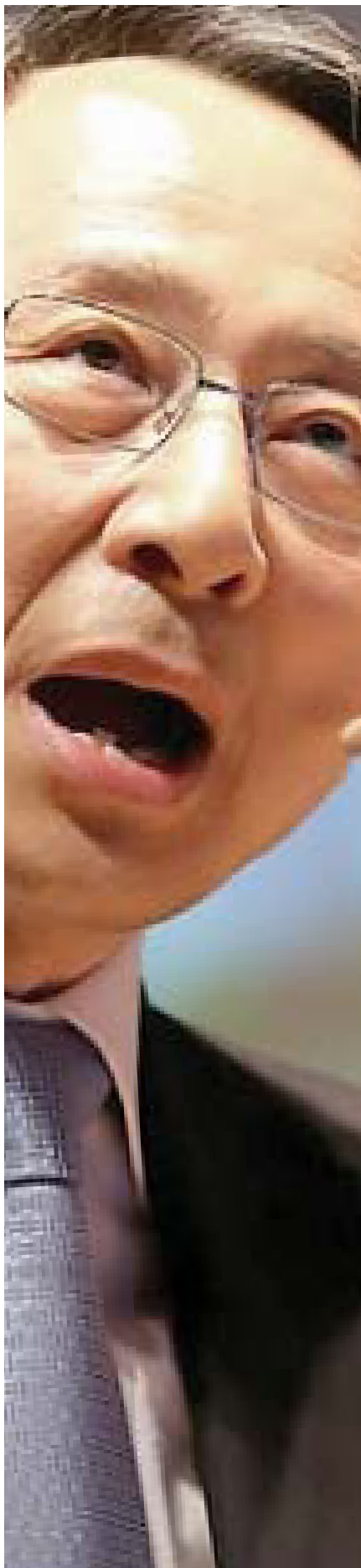
market index <3일>

코스피 2008.49 (-21.67)

코스닥 714.34 (-10.72)

금리(국고채 3년) 1.50 (+0.01)

환율(원·달러) 1165.90 (-6.30)

황 꼼수에 황된 국민

"통신비 부담 줄인다" KT 주도 '데이터요금제'
가입자당 통신료 되레 증가… "눈뜨고 코베인 격"
"통신사만 이익보는 구조… 가입자 부담 계속 늘 것"

한국통신산업이 흔들리고 있다. 소비자·통신사·제조사 모두가 불만이다. 날로 올라가는 단말기 값과 통신요금에 소비자들은 울상이다. 가계통신비 부담이 계속 늘고 있지만 탈출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제조사들의 상황도 여의치 않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이후 침체된 시장상황이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요금 경쟁이 치열해 가운데 통신사 역시 수익 창출에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다. 통신업계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고민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해본다. /편집자 주

KT(회장 황창규·사진)가 가계통신비 절감을 내세우며 주도한 데이터중심요금제가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가입자당 통신요금)을 되레늘이는 역효과를 낳고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 요금제가 출시될 당시부터 통신비를 늘리려는 '꼼수'라고 지적한 것이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다.

당초 KT는 음성통화를 무제한 제공하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KT가 단기 수익성이 악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와 달리 가입자들의 통신비가 늘어나며 2분기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했다. 가계통신비의 '혁신적인 절감'을 기대했던 소비자들은 그 효과를 느끼지 못한다는 설문결과도 나왔다.

3일 KT사업보고서를 살펴보면 무선 분야 매출은 전년 동기(1조7991억원) 대비 1.7% 증가한 1조8292억원을 기록했다.

2분기 가입자당 통신요금은 전분기(3만4389원) 대비 1.4% 늘어난 3만4879원을 기록했다. 가입자당 통신요금은 통신사의 수익성 지표다.

특히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 매출을 나타내는 '무선서비스'는 1조6302억원의 수익을 나타내 전분기(1조6017억원) 대비 1.8%, 전년 동기(1조5397억원) 대비 5.9% 증가했다. KT는 이에 대해 LTE 가입자 기반 확대를 매출 증가 요인으로 설명했다.

KT는 데이터중심요금제 출시로 연간 4304억원의 가계 통신비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막상 공개된 실적에서 데이터 요금제 출시 전과 후를 비교해보니 무선 수익은 더욱 늘어났고 그에 따라 가입자당 통신요금도 함께 증가했다.

시민단체·증권사 애널리스트 등은 황창규 회장의 주도하에 KT가 최초로 내놓은 '꼼수' 데이터 요금제가 통신사의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지적한다.

데이터 사용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온 상황에서 이 사실을 알고 만들었다는 것이 더욱 자명해진 만큼 KT의 가입자당 통신요금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데이터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면서 5만원대 이하 요금제일 땐 데이터 제공량을 이전의 요금제보다 줄이는 '꼼수'를 쓰기도 했다.

KT의 기존 순액 요금제인 '순모두다올레 28' 요금제에선 부가세를 포함해 3만800원을 내면 750메가바이트(MB)를 줬지만, '데이터선택요금제299'에선 3만2890원에 300MB만 제공하고 있다.

상위 요금제에서도 500MB씩 데이터를 줄였다. 6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 구간에선 기존 요금제와 제공량이 엇비슷하다.

데이터선택요금제에서 줄인 500MB를 KT의 제공량 소진 시 발생하는 과금 정책(0.5KB 당 0.01원)에 따라 계산하면 무려 1만원의 추가요금이 발생한다.

익명을 요구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고사양 게임, 음원 스트리밍, 고화질 동영상 등 데이터 이용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내놓은 요금제였다"며 "음성통화 기본료 인하 압박도 피해가고, 데이터 이용이 늘어나는 패턴 변화를 고려한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가입자당 통신요금이 증가하는 효과를 거둬 결국 가계통신비는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수의 통신업계 관계자는 "음성통화가 공짜라고 내세우면서 LTE 데이터 이용량이 낮은 2G와 3G의 이용자들을 LTE요금제로 전환을 유도해 역시 가입자당 통신요금을 높이려는 의도가 먹혀들고 있다"며 "황창규 회장은 대대적 인원 구조조정을 통한 인건비 절감과 데이터요금제 꼼수를 통해 실적을 부풀리는 단기실적 부풀리기에 전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해관 전 KT새노조 위원장은 "이번 실적 발표로 사측의 매출만 증가하고 결국 가계 통신비 인하 없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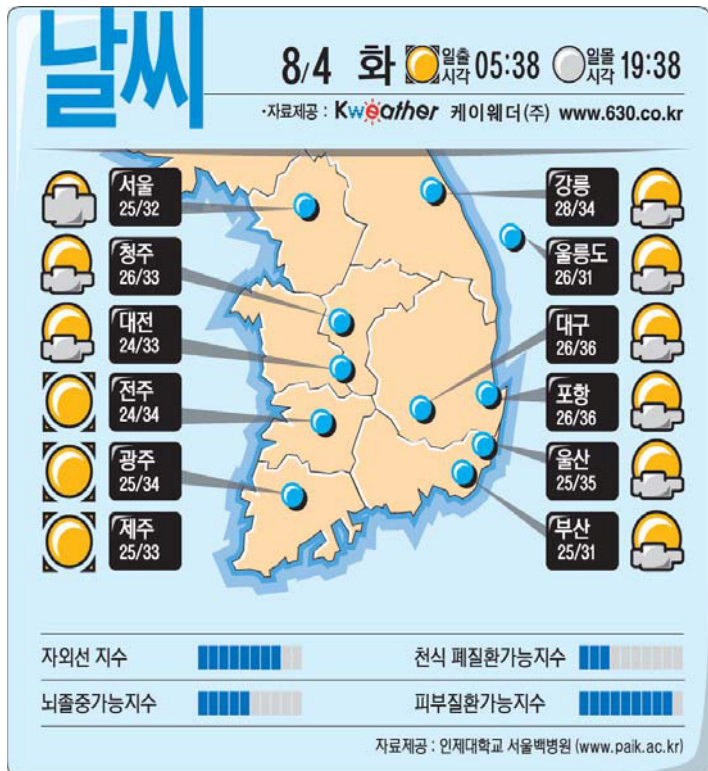
소비자들도 데이터 요금제의 가계 통신비 인하 효과를 못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와 우리리서치가 함께 지난 6월 17일 공개한 데이터 중심 요금제 관련 여론조사(성인 남녀 1000명 대상)에서 전체 응답자의 77.2%가 요금제로 인한 통신요금 인하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다고 답변했다.

효과가 미미하다(31.6%), 효과가 없다(22.9%)는 응답과 함께 오히려 요금이 인상됐다(22.7%)는 답변도 적지 않았다.

심현덕 참여연대 간사는 "이번 실적 결과는 국민 중 77%가 데이터 요금제가 통신비 인하 효과에 미미하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맞았음을 증명한 셈"이라며 "기본료 폐지를 할 수 있는 통신사 여력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기본료 1만1000원 폐지가 조속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문경 기자 hm0108@metroseoul.co.kr

KT 요금제 데이터 제공량 비교

순 모두다올레(LTE)		데이터 선택 요금제		데이터 과금
월정액(부가세 포함)	데이터 제공량	월정액(부가세 포함)	데이터 제공량	
3만 800원	750MB	3만2890원	300MB	데이터 500MB 추가 사용 시 1만원 과금 (KT 과금 정책 : 0.01원/0.5KB)
3만7400원	1.5GB	3만8390원	1GB	
4만5100원	2.5GB	4만8390원	2GB	

정치·사회

▲ 롯데가의 부자 싸움이 **재벌개혁** 움직임을 부채질하고 있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재벌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 삼성 합병 건을 계기로 진행 중이던 관련 입법도 시동이 걸렸다.

▲ 여야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쌍수를 들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청와대는 이 문제를 4일 국무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 성폭행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경북 구미갑)이 탈당을 선언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 돈키호테를 연상시키는 돌출 언행을 보여 온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자신의 언행을 반성하며 실력을 갖춘 뒤 복귀하겠다는 계획이다.

▲ **청와대**가 '증세는 없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롯데가 싸움에 대해서는 일개 재벌의 일이라며 언급을 피했다.

▲ 진행 또는 전이성 암환자들의 치료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방사선치료. 이제 수술을 받는 도중 수술대 위에서 방사선치료를 받는 일이 보편화 될 것으로 보인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최근 대장암 환자에 '수술 중 인트라빔(Intrabeam)을 이용한 방사선치료(Intraoperative Radiotherapy: IORT)'를 시행해 첫 성공을 거두었다.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이원우 원장)은 2016년부터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평가할 때 학부 전공과목의 이수 여부와 과목을 평가하는 항목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기존의 자기소개서 문항은 지원동기·대학생활·학업계획·이수한 교과목 선택기준과 현황 등 6개 항목이었다. 내년부터는 자기소개와 학부 성적을 설명하는 2개 항목으로 줄여 학부 성적 항목에서 어떤 강의를 들었는지 세밀하게 보기로 했다.

▲ 3일 대법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대법원 'IP(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허브코트(hub court·중심 법원) 추진위원회(위원회)'는 지난 6월 **국제재판소**를 설치한다는 내용 등에 합의, 이달 안으로 의결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 교육부가 교사들 사이의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 공립고등학교의 연쇄 성추행·성희롱 사건의 파문에 대응한 교육당국의 대책이다. 교육부는 교직원이 성범죄 피해를 볼 경우 학교가 교육청 등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경제·산업

▲ **삼성화재**가 2분기 실적부진을 기록하며 주가도 큰 폭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삼성화재 실적악화는 올해 삼성전자의 일반보험료를 대폭 내려준 탓이 크다고 보고 있다. 보험료 인하가 다른 계열사까지 확대될 경우 일반보험료 리스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사상 최대치인 523억9000만달러로 나타났다. 지난 6월 경상수지는 121억9000만달러로 지난 2012년 3월 이래 40개월째 흑자로 조사됐다.

▲ 신용카드의 탄생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카드공장'**이 문을 열었다. 현대카드는 '신용카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볼 수 있는 카드 팩토리(CARD FACTORY)를 오픈했다고 밝혔다. 서울 여의도 본사 3관 10층에 위치한 카드 팩토리는 현대카드 회원이면 동반 3인까지 무료로 입장 가능하다.

▲ "검찰이 대림산업·포스코건설·남광토건·경남기업·삼환기업 등 5개 건설사 전·현직 임원 11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해 올해 적발된 **담합**사건이 10건에 이르렀다.

▲ **'게임주'**가 여름방학·휴가·장마 등 계절적 성수기 진입으로 상승 모멘텀(상승 동력)을 이어갈 것이란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하반기 출시될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에 7월 들어 주가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지난달에만 22% 넘게 상승했다.

▲ 지난달 국내 **자동차** 업체들이 경기 불황 속에서도 신차 효과 등으로 올해 들어 가장 많은 내수 판매 실적을 올렸다. 현대차·기아차·한국GM·르노삼성차·쌍용차 등 5개사는 지난달 국내에서 전년 동월보다 6.4% 증가한 13만5471대, 해외에서는 7.4% 감소한 54만5670대를 판매했다. 현대차의 '싼타페'는 3년 만에 베스트셀링카 자리를 되찾았다.

▲ **휴렛팩커드**(HP)가 노트북 시장 점유율 1위에 복귀했다. 3일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HP는 올해 2분기 글로벌 노트북 시장에서 판매 점유율 21%를 기록해 레노버를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 **삼성전자**는 3일 태블릿 신제품 갤럭시 탭S2의 예약판매를 시작했다. 11일 정식 출시된다. 갤럭시 탭S2는 9.7인치, 8인치 2가지 크기에 블랙, 화이트, 골드 색상으로 출시된다. 출고가는 각각 71만9000원, 59만9000원이다.

첫 벼 수확 입추를 닷새 앞둔 3일 오전 부산 강서구 죽동동 김경양(63)씨의 논에서 부산지역 올해 첫 벼 수확이 진행되고 있다. 김씨는 지난 4월 14일 자신의 논 5940㎡에 극조생종인 조운벼를 심어 지난 해보다 4일 정도 이른 110일 만에 수확했다. /부산=뉴시스

유통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아버지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화동했다. 롯데그룹은 이날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이 화해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 한국롯데의 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의 최대주주인 일본 국적 **'L투자회사'**의 실체를 싸고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L투자회사는 1~12까지 12개 업체로 나눠 있지만 사실상 하나의 펀드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게 일본 재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 국내 **색조 화장품** 시장 규모가 커짐에 따라 아모레와 LG생활건강 등 국내 화장품 업체는 물론 해외 브랜드까지 색조 브랜드 육성에 팔을 걷어붙였다.

▲ **아모레퍼시픽**이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을 멋대로 빼내 다른 곳에 배치했다는 '갑질' 사건의 핵심 인물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국제

▲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아프리카 동부 인도양에서 발견된 여객기 잔해가 실종 **말레이시아항공** MH370편과 같은 기종인 보잉 777의 부품으로 공식 확인됐다.

▲ 일본 민간 기업이 **무기**를 제조하는 해외기업에 출자·인수를 하는 경우 일본 정부는 심사를 통해 허가할 방침이다. 전쟁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심산이다.

▲ 이탈리아 해킹팀사의 구매자로 거론된 적이 없는 일본 **공안청**도 해킹프로그램 구매를 위해 해킹팀사와 접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오는 6일(현지시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첫 TV 토론회가 열려 막말로 인기를 끈 도널드 **트럼프**가 본격적인 검증을 받게 될 전망이다.

▲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대형 **산불**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해 비상사태가 선포됐다.

‘L’을 먹는 자가 한국롯데를 먹는다

호텔롯데 지분 73%보유 ‘L투자회사’ 경영권 핵심고리
“2007년 日계열사들 분리해 자산관리·상속용으로 설립”
신격호, 12곳 모두 이사로 등재… 아직 지배권 확고

한국 롯데그룹의 지주사격인 호텔롯데의 사실상 최대주주인 ‘L투자회사’의 지배구조..

한국롯데의 지주사격인 호텔롯데의 최대주주인 일본 국적 ‘L투자회사’의 실체를 싸고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L투자회사는 1~12까지 12개 업체로 나뉘어있지만, 기업 이름에서도 나타나듯이 사실상 하나의 펀드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게 일본 재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12개 L투자회사가 보유중인 한국롯데의 지주사격인 호텔롯데의 지분은 총 72.65%다. 일본롯데홀딩스(19.07%)보다 훨씬 지분율이 높다.

결국 신동빈, 신동주 어느쪽이든 한국 롯데그룹을 장악하려면 롯데홀딩스만으로는 안되고 L투자회사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L투자회사에 대한 지배권은 거의 전적으로 신격호 총괄회장이 확보하고 있다.

L투자회사는 비상장인데다 롯데 특유의 비밀주의 탓에 내부 지분율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가 거의 없다.

하지만 2007년 일본 롯데의 그룹 개편 과정에서 일본 농림수산성에 보고한 사업보고서와 법무성이 발급한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보면 L투자회사의 실질적 주인이 신격호 총괄회장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다.

3일 일본 재계의 한 관계자는 “L투자회사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자산관리회사이자 상속·증여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굳이 12개로 쪼갠 것은 동주-동빈 형제 등에 대한 분할상속을 염두에 뒀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사업을 운영하는 일반적인 계열사의 경우 상속과 증여 등의 재산 처분 과정에서 일일이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에 비해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손쉽게 상속·증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오직 투자가 목적이기 때문에 자본 출자자의 의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다.

일본롯데가 지난 2007년 농림수산성에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보면 이들 12개의 L투자회사는 각각 일본 롯데 계열사인 롯데건강산업·롯데상사·롯데빙과·롯데물류·일본식품판매·롯데애드·롯데리스·롯데부동산·롯데데이터센터·롯데물산·롯데리아홀딩스 등에서 분리독립하는 방식으로 설립됐다. 당시 일본 당국에 신고한 자본금 총액은 약 57억3000억 엔이었다.

일본 법무성 법무국에서 발급한 L투자회사 등기부엔 롯데홀딩스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거의 늘 L투자회사에도 적용됐다. L투자회사가 거의 전적으로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배하에 있다는 정황증거인 셈이다.

2011년 츠쿠다 다카유키 롯데홀딩스 대표이사가 주주총회를 통해 롯데홀딩스 대표이사로 선임되자 이듬해 2012년 L투자회사의 등기부에 츠쿠다라는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또 지난해 12월 신격호 총괄회장의 뜻에 따라 롯데홀딩스 이사회가 신동주 당시 부회장을 해임한 이후 3개월만에 신동주라는 이름이 12개 L투자회사 등기부에서도 일제히 사라졌다.

롯데그룹측도 그동안 롯데홀딩스를 비롯한 한-일 롯데 계열사의 이사회의 결정은 신 총괄회장의 구두 또는 지시서를 추인하는 절차에 불과한 경우가 많았다는 걸 인정한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12개 L투자회사 전부에 이사로 등재돼있고, 이중 9곳에서는 대표이사직도 맡고 있다.

한편, L투자회사는 설립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간 한국 롯데 계열사인 호텔롯데·롯데로지스틱스·부산롯데호텔 3곳에서만 1200억여원의 현금배당을 받았다.

L투자회사는 이 외에도 20개 내외 롯데계열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돼 있다. 이들 한국 롯데 계열사에서 2007년 설립 이후 배당받은 돈은 총 2000억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계열사별 배당금을 보면 호텔롯데로부터 2008~2014년 매년 평균 154억5000만원, 총 1081억원의 현금배당을 챙겼다.

롯데로지스틱스에서는 2009년부터 6년간 연평균 6억4700만원, 총 38억8200만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부산롯데호텔로부터는 2009~2013년 연평균 13억 6200만원, 총 68억 1200만원의 배당금을 받아갔다.

/김성현 기자 minus@metroseoul.co.kr

신동빈, 첫 공식 일정 ‘제2롯데월드’ 방문

신동빈(60) 롯데그룹 회장이 3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101층 등 공사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해 부친 신격호(94) 총괄회장과 만난 후 첫 공식일정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날 오후 2시30분께 대한항공 KE2708편으로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1시간 뒤인 이날 오후 3시25분께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 도착한 신 회장은 신관 34층 신격호 총괄회장의 집무실로 향했다. 이후 회동에 나섰으나 5분 만에 종료한 뒤 첫 공식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제2롯데월드로 향했다.

롯데그룹 고위 관계자는 “신 회장은 롯데호텔에서 신격호 회장을 만나고 잠실 제2롯데월드를 방문해 101층 공사현장 등을 둘러봤다”고 말했다.

현재 건설 중인 롯데월드타워는 잠실 제2롯데월드는 롯데그룹의 최대 현안 중 하나다.

2010년 11월 착공 이래 4년 5개월 만인 지난달 24일 100층을 넘어섰다. 올해 말 123층, 555m에 이르는 외관 공사가 완료되면 1년 동안 내부 공사를 거쳐 2016년말 완공될 예정이다.

신동빈 회장이 입국 뒤 공식 일정으로 신격호 총괄회장의 숙원사업인 제2롯데월드를 택한 것을 두고 아버지 설득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상길 기자 sweatsk@

신동주, 일본행 돌연 연기… 신동빈 만날까?

신동주(사진) 전 일본롯데 부회장이 3일 일본으로 향한다고 밝혔다가 돌연 연기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달 27일 일본 현지에서 롯데홀딩스 경영권을 거머쥐려 시도했다가 실패하자 29일 귀국해 집안 내부의 여론결집에 힘써 사실상 ‘반(反) 신동빈’ 세력 형성을 도모해왔다. 이어 분쟁의 분수령이 될 롯데홀딩스 주총에 대비하려고 일본으로 가려 했다.

그러나 이날 오전 11시40분께 일본행을 위해 김포공항에 모습을 드러낸 사람은 부인 조은주씨 혼자였다. 신 전 부회장은 동행하지 않았다.

신동주 전 부회장의 일본행 연기를 두고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온다. 롯데그룹 안팎에선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견제하려는 의도라는 데 무게를 둔다. 신동빈 회장이 이날 귀국한 가운데 신격호·동빈 부자 간 회동이 전격적으로 이뤄져 신 총괄회장이 신 회장의 설득에 넘어갈 것을 우려한 행보라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신동주 전 부회장이 신동빈 회장을 만나려고 일본행을 미뤘을 것이라는 추론도 제기된다. 신 전 부회장 본인의 뜻이거나 부친 신 총괄회장의 명령으로 신동주·동빈 형제 회동 또는 신격호·동주·동빈 3부자 회동을 위해 국내에 머물고 있다는 것.

신동빈 회장 역시 ‘가까운 시일 내에’ 형과 아버지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혀 어떻게든 형제 또는 3부자가 회동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

신동빈 롯데회장 귀국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한뒤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황교안 국무총리가 3일 서울 명동에서 한 화장품 매장을 방문한뒤 매장 앞에 모인 중국 관광객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임시휴일 지정하자" 여야, 오랜만에 한마음

여야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13일 쌍수를 들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청와대는 이 문제를 4일 국무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14·15·16일 연속으로 휴가를 갈 수 있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가뭄으로 침체된 내수경기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같은 생각이다. 더 나아가 설,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하고 있는 대체공휴일 제도를 국경일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공론화하고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하자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송병형 기자

김태호 "공부하고 올 것"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

돈키호테를 연상시키는 돌출 언행을 보여 온 김태호(사진)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3일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최연소 군수·도지사를 거치면서 몸에 밴 스타의식과 조급증은 지나치게 많은 사람을 만나게 했지만 반대로 몸과 마음은 시들어갔다. 초심은 사라지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귀가 닫히고, 판단력은 흐려지고, 언어가 과격해졌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 자신부터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실력과 깊이를 갖췄을 때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완전한 정계 은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치적 계산과 관련된 것은 아니다. 정치적 고려 없이 결단한 건 처음"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여당 지도부가 완강히 말릴지라도 재고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윤정원 기자 garden@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 궁 호
사장·편집인	김 종 학
편 집 국 장	강 세 준
광 고 문 의	02)721-9851,3
독 자 센 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삼성물산식 자사주 매각 막는다

박영선, 상법 개정안 발의 우호주주에 일괄 매각 금지 與 "포이즌필 등 도입 추진"

재벌그룹들이 자사주를 이용하여 우호세력을 확보하고 이를 경영권 세습에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이 3일 발의됐다. 합병 성사를 위해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KCC에 매각한 삼성물산의 행태를 계기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준비해 온 법안이다. 롯데가의 집안싸움으로 재벌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이를 기회로 삼았다.

정반대로 새누리당은 제2의 엘리엇의 도전을 불허하겠다며 차등의결권과 포이즌필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경영권 방어 차원을 넘어 재벌 총수가 누려 온 기업 지배력을 영구히 보장해준다는 비판을 받는 개정안이다.

돌발적인 롯데가 사태가 어쩌면 삼성가 등 한국 재벌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상황이다.

지난 합병 때 삼성은 중립을 지켜야할 이사진이 삼성 편에서 우호주 확보에 나섰고, 자사주를 우호세력에게 매각하기도 했다. 엘리엇의 경영권 참여 요구를 지배권 약탈 시도로 보는 이들은 그 이상의 경영권 방어장치를 한국 재벌에게 마련해 주자고 했다. 엘리엇이 주주총회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적인 절차를 밟았다는 측에서는 편법마저 마다하지 않은 한국 재벌에 수술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박 의원은 개정안 발의 설명자료에서 "자사주를 처분할 상대방이 불공정할 경우 그 회사의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이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주식을 처분할 상대의 공정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재벌에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박 의원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도록 규정하되,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자에게 자사주를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개정안을 설명했다. 이럴 경우 삼성물산과 같은 자사주 매각은 불가능해진다.

이와 반대로 새누리당 소속 정갑윤 국회 부의장이 곧 발의할 법안은 적대적 인수합병이나 경영권 침해 시도가 있을 경우 기존 주주에게 저가로 주식을 발행·인수하는 권리를 주는 포이즌필과 기업 지배주주에게 보통주보다 높은 수준의 의결권을 주는 차등의결권을 담고 있다.

외국 투기자본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등에 업은 개정안이지만 이번 롯데가 사태로 우호 여론이 이어질지는 매우 불투명해졌다.

이미 새정치연합은 당청의 강력한 노동개혁 드라이브에 맞서 의제를 재벌개혁 등으로 확대시키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롯데가 사태를 계기로 지도부 내에서 "총수 일가가 소수의 지분을 갖고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편법과 불법을 동원하고 있다"며 재벌개혁을 벼르고 있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한국 재벌에 대한 성토가 나오고 있다. 특히 친박근혜 의원들의 좌장인 서청원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롯데가 사태를 두고 "국민에 대한 역겨운 배신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정부도 롯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재벌 싸움이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는 롯데가 문제를 비롯해 재벌개혁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다.

/윤정원 기자 garden@metroseoul.co.kr

미국서는 불바다…

인도·미얀마에선 물난리…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2일(이하 현지시간) 현재 '로키 화재'라는 대규모 산불로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주민 1만2000명이 대피했다(왼쪽 사진). 지구 정반대편의 인도 동부와 인근 미얀마에서는 홍수로 1000만명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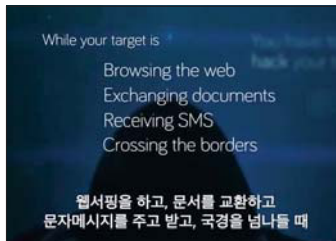
伊 해킹팀사, 日 공안청과도 접촉 드러나

작년 공안청 후원 전시회 참가 이메일 교신후 올 방문 설명회

美 시민단체, 유출자료 분석 각국 경찰에 판매 의혹 제기

이탈리아 해킹팀사의 구매자로 거론된 적이 없는 일본 공안청도 해킹프로그램 구매를 위해 해킹팀사와 접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기관이 아닌 경찰에도 판매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3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해킹팀사는 지난해 10월 일본 도쿄 아리아케의 도쿄빅사이트가 주최한 '테러대책 특수장비전'에 출전해 해킹프로그램 판매에 나섰다. 당시 전시회 관계자가 밝힌 내용이다.

교도통신은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에서 공개 중인 해킹팀사의 내부문서에서도 관련 이메일 자

이탈리아 해킹팀사의 해킹프로그램 갈릴레오 홍보 동영상. /유튜브

료가 발견됐다고 전했다. 당시 전람회에서 해킹팀사의 부스를 방문해 해킹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인 공안청 직원과 교신한 이메일이라는 설명이다. 공안청은 경시청과 함께 전람회를 후원했다.

공안청 직원은 해킹팀사에 보낸 이메일에서 "나도 상사도 감명을 받았다. 좀 더 알고 싶다"고 적었다. 해킹팀사는 올해 4월 담당자가 일본을 방문해 설명회를 열었다.

해킹 의혹에 대해 공안청은 교도통신에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에 답할 입장은 아니다"고 말했다. 해킹팀사의 홍보 담당자는 "정보기관과만 거래를 한다"며 "고객의 신원은 밝히지 않겠다"고 답했다.

해킹팀사는 답변과는 달리 실제로는 정보기관 외에 각국 경찰당국을 상대로 적극적인 판매 활동을 벌였다는 증거가 이미 드러난 상태다.

미국 정부를 향해 정보 공개 요구 운동을 벌이고 있는 단체인 MUCKROCK은 최근 이탈리아 해킹팀사의 유출자료를 분석해 미국 전역에서 백여개 이상의 경찰당국이 해킹팀사와 접촉했다고 밝혔다. MUCKROCK이 정리한 자료에는 해킹팀사와 일본에서와 비슷한 방식으로 경찰당국의 전람회를 적극 활용한 것으로 나와 있다. /송병형 기자 bhsong@

'성추문' 심학봉, 새누리 탈당

성폭행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경북 구미갑·사진)이 3일 탈당을 선언했다.

심 의원은 이날 입장표명 자료를 통해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오늘 새누리당을 떠나고자 한다"며 "모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지난달 13일 대구 수성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여자보험설계사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호텔방으로 부른 뒤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현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경찰청은 피해 여성에 대한 조사를 끝냈으나 피해 여성은 성폭행 여부에 대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정원 기자

박래군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적용 논란

<세월호 집회 주도>

검찰 혐의적용에 법조계 의견분분
"경찰 폭행, 사전공모 가능성 희박"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이 세월호 집회 주도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건손상·일반교통방해)로 구속기소된 가운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가 박 위원에게만 적용돼 '본보기식' 처벌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법조계에선 박 위원에게 적용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최소 징역 3년에 처할 수 있는 중대범죄다.

앞서 검찰은 박 위원이 지난해부터 주최해온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에서 각종 불법행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포함한 총 네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지난 4월 18일 박 위원이 집회 참가자 6000여명과 함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했다는 게 검찰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적용 이유다.

그러나 이 같은 검찰의 주장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선 의견이 분분하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집회시위 참가자들과 박 위원이 경찰에게 상해를 입힐 것에 대해 공모를 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수죄는 두 사람 이상이 가담하면 성립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적용되기 위해선 공모공동정범이론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4.16추모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박래군 상임위원과 김혜진 운영위원이 1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시위대가 경찰에 상해를 입힌 것은 우발적인 것으로, 경찰의 폭행을 사전 공모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박주민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공모공동정범이론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리적용이 광범위해져 처벌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집회 주도자를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게 혐의를 적용한 것"이라며 "대규모 집회를 하지말라는 논리와 같다"고 덧붙였다.

프론트 라인 디펜더스, 포럼 아시아, 국제인권연맹 등 국제 인권단체들은 박 위원을 비롯해 세월호 집회 관련 구속자들을 즉각 석방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김서이 기자 redsun217@metroseoul.co.kr

'성추행' 파문 공립고, 축소·은폐 집중 조사

서울교육청 감사 진행
교장 포함 男교사 5명
女교사·학생 130명에
1년 넘게 상습 성추행

최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의 한 공립학교에서 학교장을 포함해 남자 교사 5명이 1년 이상 여교사와 여학생 130여명을 성희롱·성추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교육청은 이 학교 교사 A씨가 상습적으로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민원이 접수되고 또 다른 교사 B씨가 여학생 성추행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자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에서 교육청은 학교장을 포함해 남자 교사 5명이 지난해 초부터 상습적으로 여학생과 후배 여교사를 성희롱·성추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학교장을 포함해 4명을 직위해제하고 경찰에 형사 고발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김형남 조사관은 피해학생과 피해교사를 면담했다. 교육청에 전화한 결과 대변인은 김 조사관은 추가 조사차 해당학교로 출장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은 또 성추문에 연루된 이 학교에 대해서 추가 조사하고 있다. 추가 감사에서는 관련 내용의 고의 축소·은폐 여부 등과 지금까지 알려진 5명 외에 드러나지 않은 또 다른 성희롱·성추행 사건이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 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변인은 "피해 여선생들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서울시교육청 본청에 특별감사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대변인은 "피해 교사들의 민원에 따르면 가해 교사들은 그 학교에 근무하는 남자 교사로 지금 교장을 포함해서 다섯 명의 남자 교사들"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의 한 공립고에서 교장을 포함한 교사 5명이 동료 여교사와 여학생 130여명을 1년 넘게 지속적으로 성추행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EBS 화면 캡처

현재 피해 여교사들의 증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회식자리에서 가슴을 만지는 성추행을 한 것과 여교사에게 '애인 있어?'라는 말을 반복해서 물어보는 성희롱적 발언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특히 피해 여교사 중 한 명은 겉에 입고 있던 점퍼가 뜯어질 정도로 강제적으로 몸을 만진 성추행이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경찰은 1년 넘도록 이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성범죄 사건이 있었지만 교육청에 제대로 보고조차 되지 않아 교장이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다. 피해 여교사들이 교장선생을 여러 차례 면담 하면서 피해사실도 여러 차례 알렸고 단호하게 조치를 해달라는 요청을 수차에 걸쳐 했지만 교장은 요청을 묵살했다. 오히려 "학교 내에서 해결하자. 학교 밖으로 이 문제를 절대 발설하지 말라"고 강요했다고 한다.

성희롱 교사들은 교육청으로부터 3개월동안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동호회 활동을 이유로 학교에 드나들고, 5월에는 동호회가 학교 주차장에서 마련한 행사에도 참석했다는 사실이 조사결과 밝혀졌다.

한편 중등교육부 최영규 팀장은 "이런 대규모의 성추행 사례는 처음"이라면서 "직위해제 된 이들이 형사처벌을 받게되면 관련 법에 따라 파면·해임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팀장은 "직위해제 된 상태에서도 해당 교사들이 수시로 학교를 출입한 것은 해당학교에서 잘못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최 팀장은 또 "피해학생들이 제대로 피해사실을 알리고 보호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았던 점이 화를 키운 것 같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이른 시간 내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치선 기자 chisunti@

박영수 전 고검장 습격한 이씨, 혐의 부인

서울고검장 출신인 박영수(63) 변호사를 흉기로 습격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기소된 이모(63)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유남근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오전 열린 첫 공판에서 이씨는 "사고 당시 휘둘렀던 커터칼의 날이 아주 조금 나온 상태였고 고의성도 전혀 없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이씨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 상황을 좋게 마무리 지으려고 했지만 정덕진씨가 수임한 박 변호사가 전관 혜택을 받은 것으로 의심할만한 전화 통화를 들었다"며 "순간적으로 욱한 마음에 '너 전관(예우) 받은 것이 맞지 않냐'며 욕을 했다. 그동안 맺힌 한이 순간적으로 폭발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 이씨는 "정말로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면 칼로 찔렀을 때 박 변호사의 옷은 찢어졌어야 한다. 하지만 그런 흔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6월 17일 새벽 0시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박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퇴근하던 박 변호사를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목에 상처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자신과 법적분쟁 중이던 '슬롯머신 대부' 정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정씨를 변호한 박 변호사를 해치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검찰에서 박 변호사가 수사 관계자에게 전화를 했다는 말을 듣고, 전화통화 자체가 전관예우라고 생각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열린다. /이홍원 기자 hong@

"임원 비리의혹 알린 직원 해고는 부당"

계열사 임원의 비리 의혹을 본사 회장에게 투서한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동부그룹 농업부문 계열사 동부팜한농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직원 A씨의 해고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회사 측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2월 다른 직원 28명과 함께 '종자사업부 모 상무가 회사 자산인 종자를 횡령하고 개인적 로비를 위해 회사 공금을 유용했다'는 진정서를 동부그룹 회장에게 이메일로 보냈다.

사측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가담자 일부를 해고했다. 휴가 중이었던 A씨도 인사팀장과 면담 끝에 해고됐다. 음해성 정보 등 자료를 제공해 집단 행위를 조장하고 주도했다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위원회는 사측이 불법해고를 저질렀다며 금전보상을 하라고 판정했다. 사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김서이 기자

신동빈측 "화해 했다"… 신격호측 "거부 했다"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당사자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부인 조은주씨가 3일 오전 일본행 비행기를 탑승하기 위해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출국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1주일만에 귀국 신동빈, 신격호 집무실 찾아가 만남 시도
김포공항 도착 직후엔 "아버지의 해임 지시서는 무효"

신동빈(60) 롯데그룹 회장이 일주일간의 침묵을 깨고 3일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 아버지인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을 찾았다.

롯데그룹은 이날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이 화해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이 오후 3시 30분부터 5분 정도 만났다"며 "출장 잘 다녀왔다고 서로 인사를 주고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선호 일본 산사스 사장은 신동빈 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을 찾아왔으나 신 총괄회장이 만남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후 경영권 분쟁 사태가 수습될 지, 양측의 확고한 의견차이로 조만간 열릴 롯데홀딩스 주주총회 표 대결로 이어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동빈 회장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일본 하네다공항을 출발해 오후 2시 29분 대한항공 KE2708 항공편으로 한국에 돌아왔다. 지난 27일 경영권 분쟁이 수면위로 드러난 지 일주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신 회장은 입국장에 대기하던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자마자 아무 말 없이 30여 초간 깊숙이 고개를 숙이고 경영권 분쟁 사태에 깊이 사죄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을 언급하는 데는 말을 아꼈다.

신회장은 앞서 귀국한 형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61)이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말을 전혀 구사하지 못한 채 일본어로 인터뷰에 응하며 뭇매를 맞은 것을 의식한 듯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어로 힘주어 말했다.

그는 한·일 롯데 경영권 결정의 핵심 변수가 될 일본롯데홀딩스 지분 구성, 주주총회 날짜, 신격호 총괄회장의 건강이상설과 이에 따른 경영판단 능력보유 등의 사안에 대해 "여기서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경영권 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어머니인 시게미쓰 하쓰코(88)씨로부터 지지를 얻었는지에 대해서도 대답을 회피했다. 다만 신 회장은 어머니와 전화로 통화했다고만 말했다.

신 회장은 아울러 기자들의 질문에 "사태가 해결되는대로 신 총괄회장의 창업정신을 받아 롯데를 안정시키겠다"며 경영인으로서의 행보를 계속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또 일본에 체류하면서 준비한 반격 카드도 들어보였다. 신 회장은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공개한) 신격호 총괄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직 해임 지시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는 서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총괄회장과 면담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신 회장은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하고 있지만 지난 7월 8일이나 9일께 만났던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아버지를 만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공항 앞에 대기하고 있던 롯데그룹 차를 타고 오후 3시 30분께 신격호 총괄회장이 머무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로 향했다. 신 총괄회장의 숙소 겸 집무실이 있는 34층에서 5분간 회동한 뒤 지하 주차장을 통해 호텔을 빠져나갔다.

회동 자리에 일본행을 연기한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이 참석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신격호 총괄회장의 동생인 신선호 일본 산사스 사장은 참석한 것으로 전해져 삼촌 등 일가가 참석하는 가족회의가 열렸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박상길 기자 sweatsk@metroseoul.co.kr

현대로템, 브라질서 헌옷 기증

헌옷수거함 100여개 설치
동절기 빈곤층 지원키로

현대로템이 생산공장을 건설 중인 브라질에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대로템은 브라질상파울루주 아라라꽈라시에서 주관하는 불우이웃돕기 행사에 참여해 헌옷과 담요를 기증했다고 3일 밝혔다.

행사는 아라라꽈라시 내 소재한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내 약 100여개의 헌옷 수거함을 설치, 동절기를 대비해 빈곤층을 위한 헌옷과 담요를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현대로템은 4월부터 아라라꽈라시에 철도차량 생산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사측에 따르면 내년 3월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인 브라질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총 계약가의 60% 이상을 현지에서 구매 또는 제작해야 한다는 브라질 공공조달법에 따른 현지화 조건을 충족하게 된다.

현대로템은 브라질 공장 설립으로 3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로템은 현재 공장이 건설 중인 아라라꽈라시와의 우호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사회공헌 프로그램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재정난으로 운영이 중단된 청소년 직업훈련학교 후원, 어린이집 도서 기증, 유소년 축구교실 후원 등을 추진 중이다.

/이정필 기자 roman@

전성하 현대로템 브라질법인장(중앙)이 브라질 상파울로 아라라꽈라시청 산하 사회공헌재단에 담요를 기증하고 있다.

농협금융 복합점포 광화문 NH농협금융PLUS센터에서 농협생명 김용복 사장(좌측 네 번째)이 농협생명 입점을 알리는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왼부터 김선희 광화문농협금융플러스센터 증권센터장, 여광호 보험센터장, 이윤배 농협생명 부사장, 김용복 농협생명 사장, 김형신 농협금융지주 시너지추진부장, 장현범 은행센터장. /농협금융 제공

"보험·은행·증권업무, 한 자리서 상담하세요"

NH농협금융그룹
광화문 복합점포에 농협생명보험 입점

앞으로 보험도 은행과 증권 업무를 본 후 한 자리에서 계약하고 상담받을 수 있게 됐다.

3일 NH농협금융그룹은 복합점포인 '광화문NH농협금융PLUS+센터'에 NH농협생명보험이 입점했다고 밝혔다.

농협생보는 은행과 증권 창구와 병렬로 배치된 업무창구에서 보험계약과 보험금 지급 등 보험관련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 별도 상담공간을 마련해 보장설계와 재무설계 등 전문상담도 진행한다.

앞서 농협금융은 올 초 광화문에 제 1호 복합점포인 'NH농협금융PLUS+센터'를 선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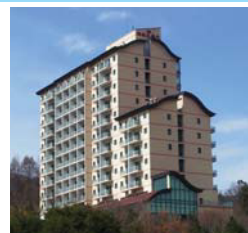
이는 기존 점포와 달리 은행과 증권 영업점간 칸막이를 없앤 개방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 고객은 다른 영업창구로 이동하지 않고도 한 장소에서 은행·증권 상품 가입이 가능하다.

현재 센터는 NH농협은행과 NH투자증권이 공동으로 들어와 고액자산가와 법인고객 등을 대상으로 한 은행·증권의 종합금융자산관리를 제공하고 있다.

또 공동 상담실에서 은행·증권 양사 직원이 공동으로 제공하는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단 생명보험직원은 공동상담실을 이용할 수 없다.

한편 농협금융은 부산지역에 은행, 보험, 증권 복합점포를 추가로 개설해 연내 최소 2개 점포를 운영할 예정이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

금강산리조트
창사25주년 특별분양
제주도와 동해바다 금강산까지
395만원에 별장을...
소유권 등기로 안정성, 법인 무기명 카드 발급
그 곳에 가고싶다.
동해안 최북단 해금강으로 가는길..
천혜의 비경을 간직한 곳으로 초대합니다.
회원특전
24시간 상담
(공휴일 상담 가능)
02-541-0113
1. 100% 소유권이전등기
2. 연간 30일 사용
3. 전국 9 지역 리조트 정회원대우 사용
4. 무료숙박 15매 증정
5. 10년후 100% 반환
6. 해외 골프장 회원대우(필리핀세부,중국청도)
신청금 50만원 입금계좌 : 기업은행 244-025348-04-029 ㈜미봉
※신청금 입금순으로 소유권 등기 바닷가 객실 배정합니다.
*본 회원권은 이용권이 아니며 관광진흥법에 의거하여 분양승인을 받은 정식 리조트 회원권 입니다.
강원도 고성 금강산리조트(229 객실) 실제 전경입니다.
제주 금강산 리조트
부산 해운대 리조트
도고 리조트
설악 리조트
지리산 리조트
나주 스파 리조트
경주 리조트
금강산리조트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53-4 남도빌딩 5층 (주)미봉
24시간 상담 (공휴일 상담 가능)
02-541-0113

삼성전자 보험료 깎아준 삼성화재 급락

2분기 순익 전분기比 18.6% ↓
투자수익률·손해율 동반 하락

상반기 보험업이 호황을 맞은 가운데 업계 상위 기업 삼성화재가 2분기 실적 부진을 기록하며 주가도 큰 폭 하락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전문가들은 삼성화재 실적 악화는 올해 삼성전자의 일반보험료를 대폭 내려준 탓이 크다고 보고 있다. 보험료 인하가 다른 계열사까지 확대될 경우 일반보험료 리스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3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화재는 전 거래일 대비 5.89%(1만6500원) 내린 26만3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2분기 실적 악화 소식에 기관이 114억1300만원 어치 물량을 쏟아내며 지수 하락을 견인했다.

삼성화재는 지난달 31일 2분기 당기순이익은 전분기 대비 18.6% 내린 2390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같은 기간 원수보험료는 3.5% 늘어난 4457억원을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은 19.7% 줄어든 318억원에 그쳤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전년보다 2.4% 증가한 8조7635억원의 원수보험료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11% 상승한 8조7653억원을 달성했다.

이 기간 보험종목별 원수보험료를 살펴보면 장기보험은 보장성 중심의 신계약과 보유계약 성장세에 힘입어 1.6% 올랐고 자동차보험도 8.1% 늘었으나, 일반보험은 5.7% 감소했다.

투자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11.9% 늘어난 9341억원을 달성했으나 보험영업이익은 2209억원 손해로 지난해보다 적자폭이 확대됐다.

특히 삼성화재의 일반보험료는 삼성전자의 보험료를 낮춰준 결과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는 삼성그룹 계열사 물량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일반보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4월 일반보험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이후 3개월이 지난 지난달 30일 삼성전자는 삼성화재와 일반보험 거래 내용을 공시했다. 이날 공시된 보험료는 495억원으로 지난해 1258억 원 대비 60.7% 감소했다.

삼성화재는 제일모직 공장 화재 이후 약 150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해 손해율이 높아졌다.

특히 삼성전자 보험료를 절반가량 줄인 것이 손해율 상승에 한 몫 했다는 평이다.

지난해 삼성화재가 계열사와 맺은 일반보험 거래 규모는 3000억원에 달한다. 삼성화재의 일반보험 전체 실적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삼성화재는 실적을 공개하는 자리서 "삼성전자의 리스크 재진단에 따른 보험조건 변경 때문에 일반보험료가 감소했다"며 "삼성전자 외의 계열사에 일반보험료를 인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화재가 '더 이상의 보험료 인하 정책은 없다'고 밝힘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업계는 보험료 인하 정책이 전 계열사로 확대될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김태현 키움증권 연구원은 "올해 삼성전자는 글로벌 재보험 요율 하락과 삼성전자의 리스크 관리 강화에 따른 조치로 삼성화재에 지급하는 보험료를 절반 수준으로 절감했다"며 "향후 삼성화재의 타계열사 계약에서도 보험료 하락 압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김 연구원은 이어 "삼성화재의 계열사 매출 비중이 40%, 손익기여도가 50%인 점을 감안하면 매출에도 부정적"이라며 "단기적으로 계열사 보험료 감소와 이익 모멘텀 둔화 등으로 주가 상승 요인도 제한적"이라고 관측했다.

동부증권 이병건 연구원도 삼성화재의 일반보험 실적 감소 우려 등을 반영해 목표주가를 기존 35만6000원에서 34만원으로 낮추고 "삼성화재의 장기위험손해율 상승세가 타사에 비해 다소 가팔라졌다"며 "삼성전자의 일반보험료 절감이 여타 계열사로 파급될 경우 일반보험 이익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새로운 부담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김보배 기자 bobae@metroseoul.co.kr

증권 마감시황

코스피, 대내외 리스크에 2000선 위협

삼성전자 부진·롯데 사태
유가 하락·美 금리 불확실

코스피가 대내외 시장 리스크로 2000선을 위협받게 됐다.

3일 코스피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1.67포인트(1.07%) 하락한 2008.49에 마감했다. 코스피가 2010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3월 17일 이후 5개월여만이다.

이날 지수가 하락한 것은 삼성전자와 현대차 주가가 부진한 가운데 국제유가 하락으로 정유주가 동반 급락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의 금리인상 시점에 대한 불안감이 증시를 짓누르고 있다.

개인은 이날 572억원 매수 우위를 나타냈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91억원, 1064억원 어치를 팔았다.

의약품(-4.76%)을 비롯해 운송장비(-2.72%), 전기전자(-1.06%), 화학(-3.31%), 철강금속(-1.64%), 증권(-1.98%), 보험(-1.24%), 제조업(-1.74%) 등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했다. 반면 전기가스업(1.85%), 통신업(2.58%), 비금속광물(0.42%) 등은 상승세를 보였다.

시가총액 상위종목 역시 대부분 하락했다. 삼성전자(-0.84%), 현대차(-3.69%), SK하이닉스(-3.10%), 아모레퍼시픽(-0.24%), 현대모비스(-2.81%), 기아차(-3.53%), 포스코(-1.02%) 등 대부분 종목이 약세를 나타냈다.

코스피가 3일 대형 수출주들의 약세 속에 2010선 밑으로 밀렸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1.67포인트(1.07%) 내린 2008.49로 거래를 마쳤다. /연합뉴스

이에 반해 한국전력(2.55%), 삼성에스디에스(1.19%), SK텔레콤(3.41%), 제일모직(0.30%), 삼성생명(0.47%) 등은 강세로 마감했다.

이와 함께 국제유가 하락도 관련주 약세를 이끌었다.

SK이노베이션은 6.53% 하락했고, 롯데케미칼은 13.63%, LG화학은 5.2% 각각 빠졌다. 에쓰오일 역시 7.97% 폭락세를 보였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9월물 선물 가격은 전일대비 배럴당 2.89% 하락한 47.12 달러를 기록했다. WTI는 7월 한 달간 21% 가량 급락했다. 이는 지난 2008년 10월 이후 최대 낙폭이다.

코스닥지수는 전거래일 보다 10.72포인트(1.48%) 내린 714.34에 거래를 마쳤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32억원, 620억원 어치를 팔아치우고, 개인만 홀로 1169억원 어치를 순매수했다. /김민지 기자

방학·휴가 성수기… 게임株 '들썩'

| 마켓인사이트 |

하반기 신작 출시 기대
7월 주가 상승곡선 그려
"저가 매수전략이 유리"

휴가철을 맞아 동해안 해수욕장에 온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게임주'가 여름방학·휴가·장마 등 계절적 성수기 진입으로 상승 모멘텀(상승 동력)을 이어갈 것이란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게임주는 한동안 코스닥 시장에서 소외됐었다. 지난 상반기 신작 출시가 적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반기 출시될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에 7월 들어 주가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지난달에만 22% 넘게 상승했다.

기관들의 집중 매수도 주가상승을 부채질했다. 기관들이 상반기에 상대적으로 상승 폭이 크지 않았던 게임주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국내 게임업종의 주가 상승은 신작 출시 전 기대감, 게임흥행, 실적 등 세단계 사이클로 이뤄진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게임주가 신작 출시 기대감과 함께 여름 방학과 휴가 등이 겹쳐 수혜를 입을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공영규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신작 출시 전 기대감이 반영될 때 '매수'하는 전략이 유리하다"면서 하반기 모바일 게임 최우선주로 '위메이드'와 '선데이토즈'를 꼽았다. 신작인 위메이드의 '열혈전기'와 선데이토즈의 '애니팡 맞고'가 흥행 기대감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나태열 현대증권 수석연구원은 "2분기 출시 예정됐던 게임들이 3분기로 출시가 지연됐는데, 3분기가 시작된 시점부터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실적이 개선되는 회사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이성빈 교보증권 연구원도 "게임업종이 상반기 주가 부진으로 밸류에이션(평가가치) 부담이 덜하다"며 "하반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마케팅 강화로 인한 경쟁 심화, 중국 등 각국 업체들의 경쟁력 상승으로 인한 해외 진출 난조 등으로 상반기 게임업종 주가가 하락하면서 밸류에이션이 매우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는 업체 중 흥행 게임을 보유해 실적 가시성이 높은 곳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연구원은 "수많은 신규 게임 가운데 새로운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게임이 성공할 수 있다"면서 "엔씨소프트는 '아이온 레기온즈', '리니지 모바일' 등을 비롯한 기대작들을 하반기에 출시해 주가에 긍정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김민지 기자 minji@

하나대투證, 8월 코스피 2000~2130 전망

PBR, 글로벌 금융위기 후 최저

하나대투증권은 3일 "8월 코스피지수가 2000~2130 구간에서 움직일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재만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대기업이 자사주 매입과 중간배당 등의 주주친화 정책을 실행하고 있고, 국내 대형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90배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0.83배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다"며 "하단 예상 지수는 2000"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지난 2004년 미국 금리 인상 직전 3개월 동안 MSCI 달러 환산 한국 지수가 고점 대비 25% 하락했는데, 최근 3개월 동안에는 이 지수가 고점 대비 18% 하락했다"며 "이미 금리 인상 우려는 이미 7할 이상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김민지 기자

"장바구니 부담 던다" 특화카드 속속 출시

카드사, 대형마트 등과 손잡고 '가계 지원'
포인트 적립부터 할인·무료주차까지 다양

카드사들이 대형마트 등과 손잡고 쇼핑 특화 상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경기 불황 지속과 체감물가가 높아짐에 따라 먹거리 등 생활비를 줄이려는 가계를 지원하고 나선 것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롯데마트와 제휴해 롯데빅(VIC)마켓에서 최고 15%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롯데VIC마켓 신한카드'를 출시했다.

롯데빅마켓은 롯데마트가 유료 회원제로 운영하는 창고형 할인점이다.

이 카드는 전월 신용판매 이용금에 따라 빅마켓 결제 금액의 최고 15%까지 할인해준다. 또 직전 3개월간의 신용판매 합산 이용금액이 총 150만원 이상일 경우 3개월마다 1만원 상당의 할인권을 제공한다.

롯데마트와 롯데마트몰(인터넷), 토이저러스에서도 5% 할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전월 신용판매 이용 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모든 커피전문점에서 10% 할인 서비스(월 최대 5000원)가 주어진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다양한 할인 서비스를 원하는 빅마켓 이용 고객들에게 가장 요긴한 카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KB국민카드도 지난달 회원제 창고형 할인점인 '롯데빅마켓'과 함께 '롯데빅마켓 KB국민카드'를 출시했다.

이는 '롯데빅마켓(킨텍스점·금천점·도봉점·신영통점·영등포점)'에서 건당 5만원 이상 결제 시 전월 이용 실적에 따라 최대 10% 할인혜택을 준다.

아울러 전월 이용실적이 30만원 이상이면 ▲택시 5%(월 최대 1만원) ▲놀이공원 30~50% ▲맥스무비 영화 예매 시 장당 3500원이 할인된다.

모든 업종에서 할인을 해주는 카드도 있다. 롯데카드의 '올마이쇼핑'카드가 바로 그 주인공.

고객의 의견을 듣고 경영에 즉각 반영하는 '듣다-바꾸다' 캠페인을 통해 탄생한 '올마이쇼핑'카드는 출시 두달만에 10만장이 발급됐다. 성과도 가시적이다.

고객은 모든 쇼핑업종에서 5%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생활 필수업종에서는 10%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다.

지난 5월 이마트와 함께 '이마트 e카드' 5종을 선보인 현대카드 역시 출시 두달여만에 카드 발급 8만장을 돌파했다.

이는 모든 가맹점에서 이용금액에 따라 적립받는 형태로 이마트와 신세계 백화점, 스타벅스 등 신세계 포인트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신세계포인트 가맹점에서 사용할 경우 전월 당월 이용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1%를 적립해준다. 당월 이용금액이50만원을 넘으면 1.5%를 쌓아준다.

그 외 모든 가맹점에서는 이용실적 조건 없이 0.7%를 신세계포인트로 적립해준다.

또한 현대카드 슈퍼콘서트, 컬처프로젝트 등 컬처 이벤트 할인과 현대카드 라이브러리 무료입장 등 현대카드만의 특화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다.

플래티넘 카드는 커피와 영화, 아울렛 할인, 주말무료주차 서비스 등도 이용 가능하다.

카드는 2종의 이마트 신용카드, 이마트 Platinum카드, 이마트 MY BUSINESS카드 등 4종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총 5종이 출시된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이번 카드 출시는 현대카드와 이마트가 공동 진행해온 컬래버레이션(collaboration)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며 "이마트는 강력한 서비스와 프리미엄 이미지를 탑재한 멤버십 카드로, 충성 고객을 확보하는 한편 현대카드 역시 카드사의 격전장인 대형유통점 시장에서 확고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의 유통점 제휴 카드가 해당 유통점 서비스에 국한된 반면 이 카드는 혜택과 범용성을 크게 늘렸다"며 "이마트 e카드는 단순한 제휴 카드가 아니라 업계에 새로운 제휴의 룰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신용카드' 탄생 한 눈에!… '카드 팩토리' 오픈

현대카드 본사에 마련
회원이면 무료로 입장

신용카드의 탄생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카드공장'이 문을 열었다.

3일 현대카드는 '신용카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볼 수 있는 카드 팩토리(CARD FACTORY)를 오픈했다고 밝혔다. 이는 가장 진화한 형태의 화폐가 '신용카드'라는 현대카드의 관점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현대카드는 숫자로만 논의되는 금융이 산업자본의 상징인 기계를 통해 재현되는 순간과 그 의미를 주목했다고 설명했다.

공간의 디자인 컨셉은 '산업혁명 시대의 공장', 즉 공장의 원형이자 19세기 산업혁명의 본원적 공간을 모티브로 했다.

카드 팩토리 천장에는 공장의 상징인 '굴뚝'을 형상화 한 대형 조명시설 9개를 설치했다. 엘리베이터와 가구 등도 공장답게 메탈(metal) 소재의 느낌으로 구성했다.

아울러 2002년부터 최근까지 발급된 총 102개의 현대카드 플레이트를 빠짐없이 진열해 디자인의 변천 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히스토리 월(History Wall)을 설치했다. 이밖에 산업혁명과 자동화, 산업디자인 등에 대한 200여 권의 책을 갖춘 서적 코너 역시 마련했다.

한편 서울 여의도 본사 3관 10층에 위치한 카드 팩토리는 현대카드 회원이면 동반 3인까지 무료로 입장 가능하다. /백아란 기자

현대해상, 고령자 간편심사 '건강보험' 출시

현대해상이 보험 취약계층이 간편한 절차로 질병·입원·사망 등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모두에게 간편한 건강보험'을 판매한다고 3일 밝혔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층의 보험 가입률은 32.5%로 평균치인 81.6%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특히 고령층 중에서도 질병이나 암 보험 가입률은 3% 수준에 불과하다.

현대해상은 이처럼 보험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유병자와 고령자 등 보험 취약계층을 위해 업계 최초로 간단한 질문만 거치면 질병진단, 입원일당, 수술 및 사망 보장을 가입할 수 있는 간편심사 상품을 마련했다.

'모두에게 간편한 건강보험'은 50세부터 75세까지 세가지 조건(5년 내 암진단 또는 암치료 여부·2년내 입원 또는 수술 여부 ·3개월내 의사의 입원, 수술 등 검사소견 여부)에 해당하지 않으면 서류제출 및 건강진단 없이 간편하게 가입 가능하다.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등 3대 질병 진단 담보를 간편심사를 통해 가입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입원일당, 수술 보장은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보험금을 지급한다. 또한 교통사고를 대비한 운전비용(벌금, 방어비용 등)과 보이스피싱 손해에 대해서도 보장한다.

/김보배 기자 bobae@

올 상반기 "불황형 흑자 지속"

경상흑자 523억9000만 달러

올 상반기 경상수지가 최대·최장 흑자를 기록했다.

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5년 6월 국제수지(잠정치)'에 따르면 올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523억9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9억6000만 달러(32.9%) 증가한 규모로 반기 경상수지가 500억달러를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상수지란 국제간의 거래에서 자본거래를 제외한 무역과 여행, 서비스 등 경상적 거래에 관한 수입과 지출을 말한다.

문제는 수출이 늘어 발생하는 흑자가 아니라 수출과 수입이 함께 줄어든 가운데 수입이 더 많이 감소한 '불황형 흑자'라는 점이다. 불황형 흑자의 경우 환율과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등 외부요인에 의해 경제가 위축되기 쉽다.

지난 6월 경상수지는 121억9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이는 전달보다 35억7000만 달러(41.4%) 늘어난 규모로 지난 2012년 3월 이래 40개월째 흑자다.

상품수지 흑자 규모는 5월의 91억6000만 달러에서 한달새 132억2000만 달러로 확대됐다.

같은 기간 수출은 493억달러로 작년 동월보다 2.0% 줄었고 수입은 360억8000만 달러로 17.3% 떨어졌다.

서비스수지는 여행과 기타 사업서비스수지 등이 악화되며 적자 규모가 전월 4억달러에서 24억9000만 달러로 급증했다.

급료·임금과 투자소득을 포함한 본원소득수지 흑자규모는 배당수입 증가 등에 힘입어 전월 2억9000만 달러에서 16억8000 달러로 늘었다. 이전소득수지는 2억2000만 달러 적자를 시현했다.

자본 유출입을 나타내는 금융계정의 유출초 규모는 전월의 88억1000만 달러에서 6월 104억9000만 달러로 증가했다. 특히 직접투자의 유출초 규모가 지난 5월의 12억달러에서 한달 만에 49억9000만 달러로 확대됐다.

외국인 직접투자 순유출 전환과 해외직접투자 증가에 따른 것이다.

증권투자 또한 외국인 증권투자의 순유출 전환 등에 따라 유출초 규모가 전월 3억6000만 달러에서 65억 달러로 늘었다.

금융상품은 2억4000만 달러 유출초과를 시현했다.

기타투자는 금융기관의 해외예치금 감소와 차입 증가 등으로 전월의 47억6000만 달러 유출초과에서 22억4000만 달러 유입초과로 전환됐다.

이밖에 준비자산은 10억 달러 증가했다. /백아란 기자

올 '건설사 담합' 과징금 벌써 7800억 넘어

호남고속철도 공사 등서 43개사 적발 돼
"정부 대책 효과없어… 적극 근절 나서야"

건설사의 담합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앞서 정부가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 종합대책'을 내놓고, 업체들도 스스로 자정노력을 기울이지만 담합 적발은 끊이지 않고 있는 것.

3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2일 대림산업·포스코건설·남광토건·경남기업·삼환기업 등 5개 건설사 전·현직 임원 11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했다.

검찰이 지목한 공사는 지난 2008년 1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제3-2공구 건설공사다. 예상공사비 2689억원인 이 사업은 전라북도 익산시 모현·평화동 등을 관통하는 2.9㎞ 구간을 건설하는 공사다.

이 공사에서 대림산업은 타 업체에는 84~86%(2290억~2340억원)를 적어내라고 요구했다. 그 결과 대림산업은 예정가의 82.7%인 2233억원에 해당 공사를 낙찰받았다. 건설업계 평균 낙찰가가 예정가의 70%선인 것을 감안하면 높은 입찰가에 공사를 따낸 것. 대신 타업체는 400억~600억원 상당의 다른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앞서 해당 공사는 지난해 11월 담합이 적발돼 관련해 건설사 14개 법인과 임원 14명을 기소되기도 했다.

당시 적발된 건설사는 GS건설을 비롯해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SK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두산건설, 쌍용건설, 동부건설, 삼환기업, KCC건설, 롯데건설, 한진중공업, 금호산업이다.

이어 들러리 혐의를 받은 코오롱건설, 한라건설, 경남기업, 남광토건, 삼부토건, 삼성중공업 6개 법인은 벌금 3000만~5000만원, 관련회사 임원 7명은 벌금 1000만~3000만원에 각각 약식 기소했다.

대한건설협회가 지난 2013년 12월 개최한 공정경쟁과 자정환경 조성 TF 회의 모습. 이 TF 팀은 2012년 4대강 담합 적발을 계기로 업계 내부에서 담합 근절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대한건설협회 제공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리니언시)한 삼성물산은 처벌을 면했다.

이 밖에도 ▲수도권 고속철도(수서 ~ 평택) 제4공구 건설 공사 ▲충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천연가스 주배관과 관리소 건설공사 등 올들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담합 과징금은 43개사에 7800억원이 넘는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2012년 4대강 사업 이후 담합사건이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다"며 "업계 내부에서도 지난 2013년 말 건설사의 자정노력 실무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정부도 올해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아직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실상 담합이 적발되더라도 건설사는 행정소송을 통해 관급공사 입찰제한을 피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담합 근절노력이 필요하다"며 "건설사 입장에서도 담합이 스스로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자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형석 기자 khs84041@metroseoul.co.kr

현대건설 '2015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현대건설은 3일 지난해 기업의 사회·환경·경제적인 활동과 성과를 담은 '2015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재무 자산, 생산·환경 자산, 지적 자산, 인적 자산, 사회관계 자산의 5대 기업 자산 영역 모델이 수록됐다. 이날 발간한 보고서를 직원들이 내보이고 있다. /현대건설 제공

현대산업개발 '고덕숲 아이파크' 분양 돌입

녹지공간·교통·학군 두루 갖춰

현대산업개발은 이달 내에 '고덕숲 아이파크'를 분양한다고 3일 밝혔다.

고덕 주공4단지를 재건축하는 이 단지는 강동구 고덕로80길 134(강동구 상일동 134)에 있다. 지하 3층~지상 25층, 13개동, 전용 59~108㎡ 총 687가구(일반분양분 250가구)다.

이 단지는 약 65만㎡(약 20만평) 규모의 명일근린공원이 단지 남북을 감싸고 있다. 인근에 상일동산, 강동아름숲, 길동자연생태공원 등도 조성됐다.

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지하철 9호선 환승역인 고덕역이 개통되면 강남권으로 2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인근에는 강동 경희대병원, 상일동 주민센터, 고덕동 우체국, 강동아트센터 등 각종 편의시설 등이 있다. 반경 1Km이내에 많은 유치원·어린이집과 초등학교·중학교가 운영중이다. 한영중·한영고·한영외고 등 명문학군도 자리잡고 있다.

고덕숲 아이파크 조감도. /현대산업개발 제공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녹지공간이 풍부한 자연환경에 편리한 교통, 명문학군 등 삼박자를 두루 갖춘 단지로 분양 전부터 고객들의 관심이 뜨겁다"며 "인근 3개 업무복합단지가 완료되면 7만6000여명 고용창출 효과로 관련 종사자들의 인구유입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입주는 2017년 11월예정이다. 견본주택은 지하철 2호선 삼성역 2번 출구에서 50m 거리에 있는 '아이파크 갤러리'에 마련됐다. /김형석 기자

'안산 센트럴 푸르지오' 견본주택 개관

대우건설, 본격 분양 나서

대우건설은 오는 7일 '안산 센트럴 푸르지오'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 30길에 위치한 이 단지는 지하 2층, 지상 29층~37층 아파트 7개동 총 990가구다. 이중 일반 분양분은 ▲84A㎡타입 59가구 ▲84B㎡타입 215가구 ▲84C㎡타입 17가구 ▲99A㎡타입 154가구 ▲99B㎡타입 43가구 ▲115㎡타입 52가구 등 총 540가구다.

4호선 중앙역과 500m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반경 5㎞ 거리에 영동고속도로 군자, 안산 IC, 서해안고속도로 안산 JC, 평택시흥고속도로 월곶 JC 등이 있다. 중앙초, 중앙중학교, 중앙초병설유치원 등이 인근에 있다. 경안고와 한양대 ERICA 캠퍼스, 서울예술대학교도 가깝다.

안산중앙역 중심상업지구에 있는 롯데백화점, 뉴코아아울렛, 롯데마트, 홈플러스,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안산시청, 고려대학교의료원, 광덕체육공원 등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아파트 내부는 최신평면인 4베이(Bay), 4룸(Room) 설계가 도입됐다. 전 타입에서 침실 1,2의 확장 가능 구조를 도입해 입주자가 방의 개수를 정할 수 있다. 또한 드레스룸과 발코니 확장시 팬트리장(84B타입 제외) 배치로 수납공간을 극대화했다.

3.3㎡당 평균분양가는 1300만원대며, 중도금 이자후불제,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가 적용된다. 입주는 2018년 4월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안산시 상록구 이동 721번지(지하철 4호선 한대앞역 인근)에 마련된다.

/김형석 기자

안산 센트럴 푸르지오 투시도. /대우건설 제공

'갤럭시A8' 초슬림 맞아?

기존제품과 비슷한 수준 가장 얇은 부분만 강조돼

"삼성, 초슬림 강조 광고 소비자 기만 행위" 지적

삼성전자가 갤럭시 A8의 두께가 초슬림이라고 강조하는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해당 마케팅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초래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3일 익명을 요구한 스마트폰 제조사 관계자는 "삼성전자 갤럭시A8의 두께는 기존에 출시된 제품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삼성전자에 이어 제품을 유통하고 있는 SK텔레콤도 해당 제품의 두께가 가장 얇은 것처럼 광고하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근 스마트폰 시장은 제조사들이 6㎜대에 이어 5㎜대 벽을 허문 '초박형' 스마트폰을 선보이며 '두께 전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들의 관심도 자연스레 제품 두께에 집중되고 있다.

때문에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시장 분위기를 반영해 갤럭시A8의 출시와 함께 '삼성전자 스마트폰 중 가장 얇은 5.9㎜의 두께로 슬림하고 감각적인 디자인이 돋보이는 제품'이라며 두께를 강조했다. 여기에 삼성전자 갤럭시A8을 단독으로 출시한 SK텔레콤도 제품 광고를 통해 넓은 화면과 고성능 카메라, 배터리 용량을 적용하고도 5.9㎜ 초슬림 두께를 갖춘 제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갤럭시A8 광고 영상 캡처.

하지만 삼성전자 갤럭시A8의 가장 얇은 부분은 상단 엣지 일부부분에 불과하다. 카메라 부분은 7.8㎜이며 실제 사용자들이 손에 쥐는 중앙 부분은 6.6㎜다. 다만 광고 중반부 제품 두께를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잠시 동안 광고 하단 자막에 작은 글씨로 '최소두께부 기준 5.9㎜'라고 표기할 뿐이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제품의 두께를 설명할때 가장 얇은 곳과 두꺼운 부분을 표시하고 있다"며 "갤럭시A8의 경우 5.9㎜~7.8㎜로 표기해야 하지만 삼성전자는 가장 얇은 부분만 강조하고 있다" 고 말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특정 기능을 강조한 마케팅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S5를 출시하고 방수·방진 기능을 장점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해당 제품은 생활방수 기능만 갖추고 있었다. 특히 방수폰이지만 침수될 경우 사용자 과실이라는 아이러니한 삼성의 A/S 정책이 논란이 된 바 있다.

왕십리역 인근 대리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스마트폰 구매시 제품 가격과 디자인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갤럭시A8의 경우 얇은 두께로 주목받고 있는건 사실이지만 저렴한 가격이 제품을 구입하는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전자 갤럭시A8은 SK텔레콤이 단독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출고가는 64만9000원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갤럭시 탭S2' 11일 출시

삼성 프리미엄 태블릿 전용 키보드·터치패드 광대역 LTE-A 지원도

삼성전자는 프리미엄 태블릿 신제품 '갤럭시 탭S2(Galaxy Tab S2)'를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날부터 예약 판매가 시작되며, 11일 정식 출시될 예정이다.

'갤럭시 탭S2' 9.7인치의 경우 전용 키보드에 마우스 역할을 하는 터치패드가 더해졌다.

또한 두께 5.6㎜, 무게 392g(9.7인치)·272g(8인치)으로 더욱 얇고 가벼으며 광대역 LTE-A를 지원한다.

'갤럭시 탭S2'는 245.8㎜(9.7인치), 203.1㎜(8인치) 2가지 크기에 블랙, 화이트, 골드 색상으로 출시된다. 출고가는 각각 71만9000원, 59만9000원이다. 9.7인치에 터치패드 키보드가 포함된 패키지는 79만9000원이며, 터치패드 키보드를 별도 구입할 수도 있다.

'갤럭시 탭S2'는 자급제 단말로 출시되며, 구입 고객은 국내 이동통신사업자나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에서 제품을 개통할 수 있다.

'갤럭시 탭 S2' 9.7인치는 3일부터 10일까지 삼성전자 온라인스토어(http://store.samsung.com) 딜라이트 샵, 디지털프라자 홍대점, 이마트 킨텍스점, 하이마트 롯데월드점 등 주요 매장에서 예약 판매된다. 예약 구매 소비자에게는 전용 터치패드 키보드를 증정한다.

/임은정 기자 eunj71@

삼성전자 '갤럭시 탭S2' /삼성전자 제공

LG전자 임직원 봉사단, 여름특화 사회공헌

'라이프스굿 봉사단' 760여명 에어컨 무상수리 등 재능나눔

LG전자가 무더운 여름을 맞아 다양한 계절 특화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3일 LG전자에 따르면 '라이프스굿(Life's Good) 임직원 자원봉사단' 760여 명은 이날부터 한 달간 '시원한 여름 나기' 봉사활동을 전개한다.

'라이프스굿 봉사단'은 소외계층 이웃들이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체장애아동교육 시설 대상 에어컨 필터 점검 및 가전제품 무상 수리 △저소득층 가정 위한 여름 물김치 담그기 △고아원, 한 부모 가정 자녀 대상 여름 캠프 등 개개인의 특기를 살린 봉사활동을 펼친다.

특히 전문 지식과 기술을 활용해 봉사 활동을 진행하는 봉사팀 '라이프스굿 봉사단 프로(Life's Good Volunteers Pro)'는 스쿠버 다이빙 기술을 활용해 한국수중환경안전협회와 함께 마산, 양양 등에서 수중 정화활동을 진행한다.

'라이프스굿 봉사단 프로팀'이 강원도 양양에서 스쿠버 다이빙 기술을 활용해 수중 정화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LG전자 제공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남애리 어촌 계장 유종태씨는 "바닷 속 깊숙이 있던 폐타이어나 쓰레기를 청소할 수 없었는데, 이번에 다이버들이 깨끗하게 정화활동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충학 LG전자 경영지원부문장 부사장은 "라이프스굿 봉사단의 가장 큰 의미는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진다는 점"이라며 "임직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 나눔 활동을 지속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라이프스굿 봉사단'은 2010년부터 5년째 LG전자가 운영해 온 임직원 자원봉사단으로 현재까지 총 6300여 명이 활동해왔다.

/조한진 기자 hjc@

진에어와 함께하는 항공 마케팅

대학생 마케터 그린서포터즈 14기 모집

진에어는 3일부터 16일까지 그린서포터즈 14기 12명을 모집한다.

그린서포터즈는 진에어의 대학생 마케팅 참여 프로그램이다.

진에어는 지난 2010년부터 매 기수마다 항공·여행 분야 마케팅 전문가를 꿈꾸는 대학생을 선발해 예비 마케터로서 실질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해외 여행 결격 사유가 없는 국내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재(휴)학생이면 지원 가능하다.

지원 방법은 진에어 홈페이지와 공식 페이스북(facebook.com/JinAir)에 게시된 모집 공고문을 참고해 지원서 작성 후 진에어 홈페이지 내 접수 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최종 합격자 12명은 서류 심사, 면접 전형을 거쳐 9월 3일 발표된다.

선발된 그린서포터즈 14기는 9월 9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12월말까지 활동한다.

활동 기간에 그린서포터즈는 마케팅 기획·실행, 온라인 콘텐츠 제작, 온오프라인 프로모션, 국내외 취항지 탐방 등 진에어의 항공 마케팅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정용기 기자 yonggi@

국내 완성차업체, 'SUV' 덕에 웃었다

5개사 7월 실적종합
현대 싼타페 내수판매 1위
카니발·티볼리 등도 '인기'
수출 시장선 희비 엇갈려

현대차 싼타페 더 프라임.

국내 완성차 업계가 7월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판매에서 웃었고 해외 판매에서 희비가 갈렸다.

3일 각사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국내 5만9957대, 해외 29만7838대 등 총 35만7795대를 판매했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6.0% 감소한 수치다. 국내 판매의 경우 싼타페를 비롯한 RV(레저차량)이 실적을 견인해 전년 동기 보다 판매량이 0.5% 증가했다. 특히 싼타페는 9942대가 판매돼 전체 내수 판매 1위에 올랐다. 현대차는 이달 해외 시장에서 전년 동기 보다 7.3% 감소한 판매량을 기록했다.

기아자동차는 이달 국내 4만8202대, 해외 18만6325대 등 총 23만4527대를 판매했다. 기아차의 이달 판매는 신차와 RV 판매 호조로 2000년 현대차그룹 출범 이래 기아차 사상 최다 국내 판매를 기록했다. 하지만 내수 판매 증가에 따라 수출물량 공급이 감소하며 해외 판매가 감소해 전체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10.7% 감소했다.

신형 K5의 신차효과와 쏘렌토·카니발 등 RV 인기 차종의 판매 호조로 국내 판매는 전년 동기 보다 13.9% 증가했다. 해외 판매는 국내 판매 증가에 따른 수출물량 감소와 신흥국 경제 불안 등의 요인으로 전년 동기 대비 국내공장생산 분과 해외공장생산 분이 각각 18.5%, 11.5% 감소했다. 그 결과 전체적인 해외 판매는 15.4% 감소했다.

한국지엠은 이달 내수 1만2402대, 수출 4만7088대 등 총 5만9490대를 판매해 전년 동기 대비 20.6% 증가했다. 내수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6.8% 감소했다. 수출은 같은 기간 30.7% 증가했다. 쉐보레 올란도는 2054대, 쉐보레 말리부는 1695대가 판매돼 두 차종 모두 올해 들어 월 기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르노삼성자동차는 내수 6700대, 수출 1만816대 등 총 1만7516대를 판매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1.6% 증가한 수치다. 르노삼성의 이달 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0.9%가 증가했다. 수출은 같은 기간 70.9% 증가했다.

내수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모델은 QM3로 총 2394대가 판매됐다. 수출에서는 닛산 로그가 7500대로 가장 많았다.

쌍용자동차는 이달 내수 8210대, 수출 3604대(반조립부품 포함) 등 총 1만1814대를 판매했다. 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6.2% 증가했고 수출은 같은 기간 37.9% 감소했다. 티볼리는 디젤 모델의 가세로 올해 들어 월 최대판매 실적인 4011대를 기록했다. 티볼리는 누계 기준으로 3만3003대를 기록하며 6개월 만에 3만대 판매를 돌파했다.

/정용기 기자 yonggi@metroseoul.co.kr

기아 '2016 쏘렌토' 판매… 2765만원 부터

디자인 강화에도 가격 동결

기아자동차는 3일 '2016 쏘렌토'(사진) 판매에 돌입했다.

2016 쏘렌토는 내외장 디자인 고급감을 강화했다.

LED(발광다이오드) 포그램프를 적용해 일몰시 운전자의 시야를 개선했다. 내장 브라운 컬러팩을 인조가죽으로까지 확대 적용해 고급스런 내부 인테리어를 연출했다.

또한 2016 쏘렌토는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를 적용했다. 운전석에서 조수석 위치를 손쉽게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등 편의성을 강화했고 패들 시프트를 적용했다. 초고장력 강판 53%와 대형 플로어 언더커버로 차체 안전성도 향상시켰다.

이번 모델부터 어드밴스드 에어백을 전 트림에 기본 탑재하고 스마트 크루즈컨트롤(ASCC)과 같은 첨단 안전사양을 적용했다.

기아차는 2016 쏘렌토의 디자인과 상품성을 대폭 강화했음에도 주력트림인 2.0 디젤 프레스티지 트림 포함, 대다수 트림의 가격을 동결했다.

2016 쏘렌토의 판매가격은 2.0 디젤 모델이 ▲디럭스 2765만원 ▲럭셔리 2845만원 ▲프레스티지 2985만원 ▲노블레스 3150만원 ▲노블레스 스페셜 3320만원이다.

2.2 디젤 모델은 ▲프레스티지 3030만원 ▲노블레스 3195만원 ▲노블레스 스페셜 3365만원이다.

/정용기 기자 yonggi@

"한화인은 헌신부터 익힙니다"

한화 신입사원들이 2일 대구 죽동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상반기 신입사원 62명
복지관서 시설청소 봉사

㈜한화(사장 이태종)는 올해 상반기 신입사원 62명이 전날 대전 죽동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시설청소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봉사는 7월 27일부터 이달 7일까지 진행하는 신입사원 연수과정의 일환이다.

신입사원이 사회에 내딛는 첫 발을 봉사활동으로 시작함으로써 한화의 핵심가치 중 하나인 '헌신'에 대해 느끼고 회사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한화는 매년 신입사원 연수 시 연탄배달, 농촌봉사활동 등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정필 기자 roman@

르노삼성 '도넛 탱크' SM7 노바 LPe 선봬

연간 39만원 유류비 절감

르노삼성자동차는 도넛 탱크가 적용된 SM7 노바 LPe(사진)를 3일 출시했다. SM7 노바 LPe는 2550만원이다.

SM7 노바 LPe는 LPLi(액화석유가스 액상 분사)기술과 도넛기술을 더해 높은 연비 효율이 특징인 준대형 LPG 차량이다.

SM7 노바 LPe는 LPG 차량에 필요한 편의사양들을 적용했다.

기존 SM7 노바 SE25 트림의 기본품목에 LE25 트림의 ▲앞좌석 프레스티지 헤드레스트와 ▲뒷좌석 열선시트 ▲동승석 파워시트 ▲전방 경보장치를 적용했다.

특히 손만 넣어도 열리는 매직 핸들은 고객의 편의성을 높였다.

SM7 노바 LPe 를 구매할 경우 경쟁 준대형 LPG 차량 대비 최대 940만원을 절약(장애인 1~3급 기준)할 수 있다.

판매가격이 최대 350만원 가량 저렴하고 취등록세와 자동차세(5년 기준) 면제로 최대 551만원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높은 연비에 따른 연간 39만원 가량의 유류비 절감이 가능하다. /정용기 기자

한국토요타 '커넥트 투' 방문객 15만명 넘었다

한국토요타는 자동차 복합 문화공간 CONNECT TO(커넥트 투)의 누적 방문객이 15만명을 돌파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토요타는 이를 기념해 전날 커넥트 투에서 15만명 째 고객의 방문을 기념하는 축하행사를 열었다. 이번 15만째 방문의 주인공은 경기도 구리시에 거주하는 안소희씨다.

안 씨는 "노래선곡이 좋고, 인테리어, 커피맛, 직원의 친절함이 어우러져 오고 싶어지는 공간이다"며 "자주 올 때에는 1주일에 2번 방문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토요타는 안 씨에게 커넥트 투의 1년 무료 커피교환권을 증정했다.

2일 진행된 '커넥트 투 방문객 15만명 돌파기념 축하행사'에서 이병진 렉서스 이사(맨왼쪽), 15만 번째 방문객 안소희씨(왼쪽 두 번째) 등 관계자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한국토요타 제공

커넥트 투는 한국토요타가 토요타 본사와 공동으로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는 감동을 전달하기 위해 약 2년여에 걸쳐 심혈을 기울인 프로젝트다.

자동차와 다양한 문화요소를 결합, 만남의 장을 제공하고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공간을 지향한다.

한국토요타 측은 "커넥트 투는 편안한 휴식을 선사해 고객의 오감에 잘 어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오픈 이후 일일 평균 1000여명의 고객이 방문하는 등 고객반응이 좋아 '자동차'하면 연상되는 기계적인 이미지를 탈피, '다시 오고 싶은 세련된 만남의 장'으로서의 기획의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용기 기자

Music by Richard Rodgers
Lyrics by Oscar Hammerstein II
New Book by Douglas Carter Beane
Original Book by Oscar Hammerstein II

8/11 2PM FIRST TICKET OPEN

출연_ 안시하 서현진 윤하 백아연 엄기준 양요섭(BEAST) 산들(B1A4) 켄(VIXX) 서지영 홍지민 이경미 가희 정단영 임은영 김법래 장대웅 박진우 황이건

프로듀서_ 김선미 연출_ 왕용범 음악감독_ 이성준 안무_ 홍유선 무대디자인_ 서숙진 조명디자인_ 민경수 음향디자인_ 권도경 영상디자인_ 송승규 의상디자인_ 조문수 분장디자인_ 양희선 소품디자인_ 조윤형 기술감독_ 이유원

주최 SBS 이데일리 제작 (주)엠뮤지컬아트 제작지원 신한캐피탈 제작대행 (주)엠뮤지컬 후원 신한금융그룹 홍보 SHOWHOLIC

예매 인터파크 1544-1555 AUCTION 티켓 1566-1369 문의 (주)엠뮤지컬아트 02-764-7857~9 ENT 1644-5210

Orchestrations by Danny Troob Music Adaptation & Arrangements by David Chase

Exclusive Asian Representation by Broadway Asia Company, LLC www.broadwayasia.com info@broadwayasia.com

‘더위먹은’ 대한항공·아시아나 걸핏하면 고장

엔진 등 기체결함에 출발지연·회항 잇따라
고급항공사 택한 탑승객 서비스 불만 제기

국내 풀서비스캐리어(대형 항공사) 양날개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기체 결함으로 출발 지연과 회항이 최근 끊이지 않고 있다.

저비용항공사(LCC)나 외항사보다 운임을 더 지불하더라도 정확하고 쾌적한 비행을 위해 양사를 택한 승객들의 불편도 가중되는 실정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대한항공 국내선 여객기가 활주로에 진입해 달리다가 급정거해 이륙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다.

김포공항에서 제주공항으로 가려던 해당 여객기는 램프 계통 결함으로 1시간 30분가량 출발이 늦어졌고, 안에 타고 있던 승객 148명은 불편을 겪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지난달 24일 발생한 일인데 해당 여객기에 램프 문제가 있었고, 큰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륙이 지연되면서 환승을 원한 5명만 다른 항공편으로 바꿔 탔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고 바로 전날에도 대한항공 국제선 여객기가 엔진 이상으로 회항한 바 있다.

당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공항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해당 여객기는 이륙 직후 엔진 이상이 감지돼 곧바로 회항했다.

이에 탑승객 186명은 사우디 현지에서 하루를 더 보내야 했다.

지난달 중순에는 제주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갈 예정이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기체 결함으로 결항해 탑승객 406명이 불편을 겪었다.

아시아나 역시 지난달 중순 인천에서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로 향하던 여객기가 기체 결함으로 회항하는 일이 발생했다.

대한항공 A330-300 여객기. /대한항공 제공

해당 타슈켄트행 여객기는 엔진 오일 계통 결함으로 이륙한 지 1시간 만에 인천국제공항으로 돌아왔고, 탑승객 123명은 대체기로 갈아타야 했다.

아시아나는 6월에도 프랑스 파리행 여객기의 전자계통에서 이상이 발생해 이륙이 지연된 바 있다.

사측은 여객기에 승객을 태우고 이륙 준비를 마친 뒤 활주로로 이동하던 과정에서 기체 결함을 발견했다.

이미 탑승을 마쳤던 승객 240명은 여객기에서 내려 대체기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불편을 겪었다.

이처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체 결함으로 회항과 결항, 이륙 지연이 계속되면서 탑승객들은 서비스 품질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정시 운항과 편안한 비행서비스를 위해 LCC나 외항사 보다 높은 요금을 감수한 것인데, 이같은 사고로 일정에 차질을 끼친다는 게 주된 이유다.

업계는 기상 이변 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철저한 안전 점검과 기체 관리를 통해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한 부분이란 점을 항공사가 간과해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이호일 중원대학교 항공운항과 교수는 "통상 여름 휴가철에는 여행객이 몰리면서 항공사는 가용한 여객기를 쉬지 않고 풀타임으로 돌리게 된다. 정시성은 곧 수익성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항공사 입장에서는 안전보다 정시성을 우선하기 쉽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하지만 여름철에는 폭우와 태풍 등 기상 조건과 성수기가 맞물려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결국 안전을 기반으로 한 정시성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 고민하고 조율하는 게 항공사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이정필 기자 roman@metroseoul.co.kr

서울시내 한 커피숍에서 홍보 모델이 '올레 비즈 성공팩'을 통해 결합할 수 있는 모바일, 카드 결제기(VAN) 등의 상품을 들고 상품 출시를 알리고 있다. /KT 제공

소상공인 위한 '올레 비즈 성공팩' 출시

KT, 기업용 통신 상품 선봬

KT는 소상공인과 100인 이하 개인·법인 사업자가 기본 통신상품과 맞춤형 솔루션을 결합한 상품 '올레 비즈 성공팩'을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올레 비즈 성공팩은 ▲국내 중소기업용 결합상품 중 최다 라인업, ▲원하는 상품을 선택해 할인, ▲상담, 가입, 개통, A/S, 요금청구까지 한번에 해결하는 편리함까지 갖췄다. 또한 인터넷, 모바일과 같은 통신 상품뿐만 아니라 카드 결제기, CCTV, 보안, 사업홍보 솔루션, 경영관리 솔루션 등 사업에 필요한 상품들을 제공한다.

상품 상담과 가입은 중소사업자 전용 고객센터(1588-0114)을 통해 원스톱으로 가능하다. /정문경 기자

LGU+, IT 액세서리 사업 확대한다

국내 IT 액세서리 시장이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LG유플러스가 모바일 액세서리 사업을 확대한다.

LG유플러스는 고객들에게 다양한 IT 액세서리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LG유플러스 온라인샵과 오프라인 매장에 '더가젯'이 입점한다고 3일 밝혔다. 더가젯은 최신 스마트 IT 액세서리를 선별해 판매하고 있는 편집샵으로 현재 유명 백화점 8곳에 매장을 갖고 있다.

또한 온라인샵인 U+Shop 내 액세서리 온라인샵에서 더가젯 카테고리를 신설하고 홈페이지도 새롭게 구성했다. /정문경 기자

SKT '세계군인체육대회' 공식 후원 나서

통신 부문 후원 협약 체결
광케이블·와이파이 제공 등
경기장 등에 장비 구축키로

SK텔레콤은 '2015 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와 통신 부문 공식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 용산구 대회 조직위 서울사무소에서 이날 진행된 협약식에는 이형희 SK텔레콤 MNO총괄과 김상기 2015 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조직위원장이 참석해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SK텔레콤은 경기가 열리는 경상북도 8개 시군을 연결하는 광케이블을 점검·추가 매설하고, 원활한 초고속 와이파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경기장, 선수촌 등 약 1000여 지점에 AP 장비를 신규 구축할 계획이다. 생생한 경기 현장을 각국에 실시간 전달할 수 있도록 방송 중계망 구축도 완비할 계획이다.

3일 SK텔레콤-대회 조직위의 통신 부문 공식 후원 협약식에서 이형희 SK텔레콤과 김상기 대회 조직위원장이 참석해 기념사진을 촬영 중이다. /SK텔레콤 제공

아울러 모든 경기장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시 실시간으로 인지·대응할 수 있는 IT종합상황실(ITCC)과 경기장 별 경기운영시스템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정보처리센터(MDC)를 운영한다.

전 세계 군인들의 스포츠제전인 2015 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는 '알차게! 멋지게! 일류명품으로!'라는 비전 아래 100여 개국 87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10월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 열린다.

/정문경 기자 hm0108@

SK케미칼, 지역 아동 위해 5000만원 상품권 전달

전국 5개 복지관에 지원
아동 물품 구매에 쓸 것

SK케미칼(사장 김철)은 한솔종합복지관을 비롯한 전국 5개 복지관에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5000만원을 전달한다고 3일 밝혔다.

상품권은 복지관에 전달돼 지역 아동을 위한 물품을 구매하는데 쓰인다.

SK케미칼은 지원된 상품권을 통한 후원 아동의 실질적 혜택의 극대화를 위해 '희망 메이커'를 통해 제휴를 맺은 전국 14개의 복지관의 사업 공모를 받아 후원 여부와 규모를 결정했다.

공모 결과 ▲장애·비장애 청소년 융합 아트 교실 (광주 우산종합사회복지관) ▲결식 예방 위한 쿠킹 클래스 (오산종합사회복지관, 울산남구종합사회복지관) ▲멘토링 프로그램 (청주종합사회복지관) ▲문화예술 교실 (분당 한솔종합사회복지관) 등의 프로그램을 선정했다.

신격호 3부자 모두 서울에… 극적 화해?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롯데홀딩스 주주총회를 앞두고 지분 싸움에서 밀릴 것으로 예산되는 신동빈(60) 롯데그룹 회장이 아버지 설득에 나섰다.

3일 오후 2시 30분 께 김포공항을 통해 일본에서 귀국한 신 회장은 곧바로 롯데호텔에 머물고 있는 아버지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향했다. 오후 3시 30분께 롯데호텔에 도착한 신 회장은 신 총괄회장에게 입국 보고를 했으며 5분 정도 대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당일 오전까지 일본에 남아 이사회와 주주들을 설득한것으로 알려진 신 회장은 롯데홀딩스 지분이 형 신동주(61)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쏠리자 급격히 전략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두 형제가 이제는 지분 싸움이 아닌 아버지 쟁탈전에 돌입한 것이다.

신 총괄회장은 롯데홀딩스 지분을 본인 명의로 28%, 자신의 대표

3일 오후 2시 30분경 신동빈 회장이 입국했다. 신 회장은 입국 후 곧장 호텔롯데에 머물고 있는 신 총괄회장에게 향했다. /손진영 기자 son@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이 28일 오후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산관리회사 광윤사를 통해 27.65%를 갖고 있다. 신 총괄회장 혼자서만 55.65%의 과반수가 넘는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신 총괄회장이 신 전 부회장의 손을 들어주자 신 회장의 입지는 급격히 좁아졌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달 29일 아버지의 지분과 우리사주회 지분, 본인의 지분 등을 합하면 롯데홀딩스의 지분이 3분의 2가 넘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호텔롯데의 지분 72.65%를 보유한 신 총괄회장의 또 다른 자산관리회사로 추정되는 한국롯데의 지배자 'L투자회사'까지 신 전 부회장에게 넘어갈 경우 신 회장은 일본롯데는 물론 한국롯데에서도 설 자리가 사라진다. 신 회장이 기대를 걸 수 있는 건 본인이 최대주주(13.46%)로 있는 롯데쇼핑 정도다. 이마저도 신 전 부회장의 지분(13.45%)과 0.01% 차이 밖에 나지 않는다. 8.83%의 지분을 갖고 호텔롯데가 신 전 부회장의 손을 들어주면 신 회장은 롯데쇼핑에서도 밀릴 수 있다. 신 총괄회장을 제외하고는 롯데의 작은 계열사 하나도 챙길 수 없다.

업계에 따르면 이미 신 회장을 향해 등을 돌린 신 총괄회장이 갑자기 신 회장을 밀어줄 가능성은 낮다. 신 회장이 아버지와의 담판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최고의 답변은 롯데그룹을 신 전 부회장 등의 신 씨 일가와 나누는 정도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신 회장은 더 이상 그룹 전체를 가지고 욕심을 내서는 안된다"며 "이제는 롯데쇼핑 이하 알짜배기 계열사를 챙기는 방향으로 아버지를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minus@metroseoul.co.kr

신동빈 "롯데는 한국회사입니다"… 맞아?

'호텔롯데' 지분 90% 이상을 일본 회사가 소유
신동빈 "매출 95%가 국내서… 롯데는 한국회사"

롯데가 과연 한국회사일까.

3일 입국한 신동빈 회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롯데는 한국회사"라고 말했다. 매출의 95%가 한국에서 나온다는 것이 이유다.

하지만 한국롯데를 지배하는 것은 일본 소재의 '롯데홀딩스'와 'L투자회사', '광윤사'다. 이 회사들이 한국롯데의 지주사로 있으며 국내에서 발생한 배당금을 전부 일본으로 가져가고 있다.

한국 롯데는 호텔롯데가 지주사격으로 있으며 지배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호텔롯데의 단일 최대주주(19.07%)는 롯데홀딩스다.

롯데홀딩스는 일본국 동경도 신주쿠 니시신주쿠에 소재한다. 호텔롯데는 부산롯데호텔(46.62%)·롯데물산(56.99%) 등의 최대주주이기도 하다.

롯데홀딩스는 배당금의 총액이 공시되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호텔롯데로부터 총 300억9390만원의 배당금을 챙겼다. 부산롯데호텔로부터는 총 108억637만원의 현금배당을 받았다.

12개로 나뉘어져 호텔롯데의 지분 72.65%를 갖고 있는 'L투자회사' 역시 일본 회사다. 소재지는 일본 도쿄 시부야구 하츠다다.

L투자회사는 호텔롯데 외에 롯데로지스틱스(45.34%)·롯데알미늄(34.92%)·롯데물산(4.98%)·롯데푸드(4.34%)·부산롯데호텔(45.54%) 등의 대주주 또는 최대주주로 존재한다. 이 외에도 20여개 내외의 일본 롯데 계열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돼 있다.

L투자회사는 2007년 설립된 후부터 지난해까지 호텔롯데로부터 총 1081억원의 현금배당을 받았다. 롯데로지스틱스에서는 2009년부터 6년간 총 38억8200만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부산롯데호텔로부터는 2009년부터 총 68억1200만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L투자회사가 위 3곳에서만 받은 현금배당금은 1200억여원에 이른다.

롯데홀딩스와 L투자회사는 둘이 합해 호텔롯데의 91.72% 지분을 갖고 있다.

연 평균 188억원의 배당금을 가져간다. 광윤사의 지분 5.45%까지 포함하면 호텔롯데는 순수한 일본 소재 회사라해도 무방하다.

국내 롯데의 거의 모든 계열사는 롯데홀딩스·L투자회사·호텔롯데가 지주로 있다. 이들은 모두 지주사 또는 지주사격 회사이며 일본에 등기돼 있다. 이렇듯 롯데는 사업을 한국에서 하고 매출 역시 한국에서 내고 있지만 주인은 일본이다.

/김성현 기자

6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 15% 돌파

음식료품 전년比 55%↑

통계청(청장 유경준)은 3일 '소매판매 및 온라인쇼핑 동향' 발표를 통해 지난 6월 온라인 쇼핑거래액은 4조2540억원으로 전체 소매판매액(29조3450억원)의 15.1%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2010년 1월(8.3%)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음식료품의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564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54.8% 늘었다. 이는 메르스 확산에 따른 대형마트 또는 백화점 기피 현상 때문으로 분석했다. 올해 5월과 4월 증가 폭은 각각 36.9%, 29.4%였다.

음식료품 다음으로는 화장품(34.7%) 신발·가방(30.1%), 의복(27.9%)의 온라인 판매액 증가 폭이 컸다. /박상길 기자 sweatsk@

3일 홈플러스(사장 도성환) 잠실점에서 직원들이 '홈플러스-G마켓 당일배송 전문관' 오픈 프로모션을 알리고 있다. 이로써 고객들은 앞으로 G마켓을 통해서도 홈플러스 신선식품 등 3만여 개 상품 구매 및 당일배송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됐다. /홈플러스 제공기자

대상FNF, 최정호 신임 대표이사 선임

대상그룹 신선식품 전문 회사 대상FNF는 대표이사에 최정호(54·사진) 전 대상FNF 한국식신선연구소장을 선임했다고 3일 밝혔다.

최 신임 대표는 지난 1993년부터 대상식품 마케팅팀·개발팀장 및 대상 천안공장장·순창공장장·기흥공장장·식품연구소장을거쳐 대상FNF 한국식신선연구소장을 역임했다. 업계 최초로 밀가루 대신 쌀로 만든 고추장을 상용화하고, 팽화미를 이용한 쌀고추장 제조방법 외 29건의 특허를 보유하는 등 전통 장류식품 상품화와 소비 증진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은미 기자

AK플라자, 정일채 신임대표 이사 선임

AK플라자는 신임 대표이사 사장에 정일채(61·사진) 전 신세계푸드 대표를 선임했다고 3일 밝혔다.

정 신임 대표는 고려대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1979년 신세계그룹에 입사했다. 신세계백화점 본점장과 인천점장, 강남점장, 상품본부장 등을 거쳤고 2009년부터2012년까지 신세계푸드 대표이사를 지냈다. /박상길 기자

롯데제과, 국내 첫 제과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 롯데제과(대표 김용수)는 3일 롯데월드 어드벤처 지하 1층에 플래그십 스토어 '롯데 스위트월드'를 오픈하고, 모델들과 함께 개장 축하를 알리는 행사를 펼치고 있다. 롯데 스위트월드는 롯데제과의 인기제품과 기념품, 즉석에서 만든 수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복합 플래그십 스토어다. 롯데제과의 31개 브랜드, 총 187개의 제품을 전시 · 판매한다. /연합뉴스

'色'에 빠진 화장품업계

아모레·LG생활건강 등 색조 전문 브랜드 육성

해외브랜드도 국내 진입 로레알·어반디케이 론칭

국내 색조 화장품 시장의 판이 커지고 있다. 국내 화장품 업체는 물론 해외 브랜드까지 국내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화장품 대기업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은 색조 전문 브랜드 육성에 팔을 걷어붙였다.

에스쁘아는 올해 1월 아모레퍼시픽의 핵심 계열사 에뛰드에서 분할돼 독립법인으로 출범했다. 에스쁘아 사업부장을 거친 이지연 대표가 새 수장으로 온 뒤 메이크업 전문 브랜드로 성격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매장 내 메이크업 서비스, 동양인에게 최적화된 색상·텍스처 개발 등을 지속·강화할 방침이다.

LG생활건강은 지난달 28일 색조화장품 전문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ODM(제조업자 개발생산) 업체 제니스의 지분 70%를 100억원에 인수했다. 이에 따라 LG생활건강은 원가 절감과 함께 안정적으로 색조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색조 전문 브랜드숍 VDL은 6월 롯데백화점 본점 입점을 시작으로 백화점 유통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에 40여 개, 해외 6개국에서 17개 매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신규 브랜드의 경우 스킨케어 시장이 포화됨에 따라 색조 전문으로 아예 눈을 돌렸다. 6월 론칭된 시에로코스메틱은 색상 별로 네일 41종, 립 제품 40여 종을 출시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YG엔터테인먼트가 내놓은 문샷은 아이·치크·립 등이 주력 제품이며 색조 전문을 표방하고 있다.

해외 브랜드도 국내 시장을 찾고 있다. 프랑스 화장품 기업 로레알은 이달 중국과 일본보다 먼저 한국 시장에 어반디케이를 내놓았다. 슈에무라·조르지오 아르마니·입생로랑에 이어 로레알이 4번째로 국내 시장에 선보인 메이크업 브랜드다. 이달 21일 신촌 현대백화점 입점을 시작으로 28일 압구정 갤러리아에 2호점을 낸다.

로레알코리아 관계자는 "한류 때문에 뷰티 트렌드를 리드한다는 인식이 있어 한국 시장을 눈여겨 보고 있다"며 "네이키드 팔레트·아이섀도우 프라이머 포션 등 대표 제품을 내세워 색조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국내 색조 화장품 시장은 1조68245억원 규모다. 대한화장품협회가 발표한 지난해 화장품 생산실적에 따르면 기초 제품류의 생산금액은 5조 929억원으로 전체의 56.7%를 점유하고 있다. 이에 비해 색조는 1조4264억원으로 그 비중이 15.9%에 그쳤다. 색조의 점유율은 10%대이지만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16.6%로 기초(9.6%)를 앞섰다. 아직 시장이 크지 않은 만큼 잠재력이 높은 것이다. 글로벌의 경우 색조 비중이 30% 이상인데 국내도 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피부 관리 제품 위주로 소비를 해왔던 분들이 색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며 "포화된 스킨케어 보다 색조가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ksj0215@metroseoul.co.kr

檢, 아모레퍼시픽 '갑질' 핵심인물 수사

아모레퍼시픽이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을 멋대로 빼내 다른 곳에 배치했다는 이른바 '갑질' 사건의 핵심 인물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3일 관련업계와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모(52) 전 아모레퍼시픽 상무를 고발한 사건의 배당을 마치고 수사절차에 돌입했다. 아모레퍼시픽은 2005~2013년 약 8년간 기존 특약점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방문판매원 3482명을 새로 여는 특약점이나 직영점에 멋대로 재배치한 혐의(공정거래법상 거래 관련 지위 남용)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 전 상무가 아모레퍼시픽 방판사업부장이던 2013년 1월 소속 팀장들에게 "실적이 부진한 방판특약점의 판매원을 다른 특약점에 재배치하거나 점주를 교체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약점주는 방문판매원을 모집해 양성할수록 이익이 커지는 구조다. 따라서 숙련된 판매원이 줄어들면 점주는 매출이 줄어드는 피해를 보게 된다.

공정위는 "이 전 상무가 방판사업부장으로서 아모레퍼시픽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조사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위의 고발 내용을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이 전 상무를 불러 관련 의혹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놀부 매각설 '솔솔'… 외식업계 '술렁'

올해 말 사모펀드 재매각 시세 차익 얻기 나설 듯

부대찌개·보쌈으로 유명한 외식업체 놀부의 매각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놀부는 지난 2011년 미국계 사모펀드인 모간스탠리에 인수된 후 빠르게 사업을 키워왔다. 올해 말에는 사모펀드가 재매각을 통해 시세 차익 얻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일 외식 업계에 따르면 놀부의 주인인 모건스탠리가 매각을 추진 중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외식 업계 관계자는 "사모펀드는 보통 4~5년 내에 기업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린 후 재매각을 통해 시세 차익을 얻는데 놀부가 올해 말부터 매각에 나서기 전 사업 규모를 키우는 데 주력하고 있고, 일부 기업은 이를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놀부는 지난 2011년 11월 미국계 글로벌 투자회사 모건스탠리계열 사모펀드 조직인 모간스탠리프라이빗에쿼티(모간스탠리PE)가 인수했다.

놀부는 김순진 전 회장이 1987년 서울 신림동에서 보쌈집으로 시작해 1989년부터 가맹 사업으로 규모를 키우며 국내 대표적인 외식브랜드로 성장했다. 김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모건스탠리PE에 놀부를 매각했다.

모건스탠리PE는 인수 후 대대적인 브랜드 재정비와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그 결과 인수 다음해인 2012년 794억원에 그쳤던 매출액은 지난해 1271억원까지 증가했다. 영업이익도 13억원에서 44억원까지 확대됐다. 당기순이익도 지난해 흑자로 전환하며 빠르게 수익성을 개선했다.

놀부는 수익개선에 이어 최근에는 브랜드 확장에 나서고 있다. 주력 브랜드인 부대찌개와 보쌈 등 외에 최근엔 치킨 프랜차이즈 '놀부 옛날통닭'을 출범시켰다. 또 지난 4월에는 마약떡볶이로 유명한 분식업체 '공수간'을 인수했다. 1월에는 커피 프랜차이즈 '벨라빈스'를 인수하고 '레드머그'를 선보였다. 이 같은 사업 확장으로 매각 당시 6개이던 브랜드는 현재 14개까지 증가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수익 개선으로 매력을 높인 놀부가 부대찌개와 보쌈 등 대중적인 메뉴부터 최근 창업 시장에서 선호되는 커피까지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매각액을 높이기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실패했던 해외시장 진출에 다시 나서는 것 역시 매각의 연장선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국내 대신 해외시장으로 판로를 개척해 매각가치를 높이려는 전략이란 설명이다. 앞서 놀부는 지난 4월 주력 브랜드인 놀부부대찌개를 앞세워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남아 시장 진출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놀부 관계자는 "매각설은 사실무근으로 현재 구체적으로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실은 없다"며 "놀부는 현재 신규 론칭한 브랜드 가맹 사업을 비롯해 해외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진주햄 '천하장사' 누적 매출 1조원 넘어

국민 1인당 218개 먹은 셈

올해로 출시 30주년을 맞은 '천하장사' 미니소시지가 누적 매출액 1조원을 돌파했다.

진주햄(대표 박경진, 박경진)은 지난 1985년 8월 선보인 천하장사의 30년간 누적 매출액이 1조680억원(올 상반기 기준)을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30년간 판매된 천하장사(15g 제품 기준)는 모두 109억개, 국민 한 사람당 218개를 먹은 꼴이다. 개당 12㎝로 지금까지 판매된 제품을 일렬로 늘어놓으면 길이가 130만 8000㎞에 달한다.

천하장사는 소시지가 흔치 않던 시절 국내 최초로 명태살을 주성분으로 하는 어육소시지 제품으로 선보였다. 출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어린이들을 위한 대표간식으로 입지를 굳혔다. /정은미 기자

비비고, 미국에 한식 알린다

CJ의 글로벌 한식 브랜드 비비고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미국 LA에서 열린 한류문화 컨벤션 행사 '케이콘(KCON) 2015'에 참가해 우리나라의 음식문화를 알렸다고 3일 밝혔다.

비비고는 케이콘에서 관람객들이 만두·고추장소스·김스낵 등 주요 가공식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식 부스를 운영했다. 또 우리나라 민속놀이인 윷놀이를 즐길 수 있는 이벤트와 전통 민요 아리랑을 재해석해 제작한 '비비고 아리랑' 음원을 들려주며 '비비고=한식'이라는 인식을 확대하는데 주력했다.

/정은미 기자

장시간운동, 여름엔 "NO"

계절별 맞춤형 전략 필요
활동량 적어도 열량소모 커
과도한 땀배출 열사병 유발

노출이 늘어나는 여름에는 몸매관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다이어트나 운동을 계획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여름이라는 계절적 특징이 운동효과나 식습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보다 건강하고 효과적인 몸매관리를 위해서는 여름철 환경에 맞는 맞춤형 관리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실제로 여름에는 체온이 쉽게 올라가면서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기 때문에 조금만 활동해도 열량소모가 높아 높은 운동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여름이라는 계절 특성상 몸매관리를 방해하는 위기요소도 적지 않다. 올라간 체온을 떨어뜨리기 위해 근육으로 공급되는 혈액이 줄게 되는데 이 때문에 피로도가 높아져 운동을 오래 하기 힘들 수 있다. 또 땀이 과도하게 배출되면 전해질의 불균형이 생겨 무기력해질 수 있고, 심해지면 일사병에 걸릴 수도 있다. 열대야 등으로 야식섭취가 늘어난다는 점도 몸매관리의 적이다.

바노바기성형외과 반재상 원장은 "효과적인 몸매관리를 위해서는 무조건 운동이나 다이어트를 하기 보다는 계절적 특성에 맞는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며 "가령 운동을 할 때 체온이 지나치게 상승하지 않도록 운동량과 시간, 종목 등을 조절하거나 고칼로리 야식을 대체할 간식을 미리 준비해놓는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 야식·더위 속 운동 일사병 위험

여름철이 몸매를 관리 하기에 좋은 이유는 자연스러운 식욕 저하와 운동량에 비해 열량소모가 높다는 점이다. 하지만 식욕이 없어 낮에 끼니를 거르면 상대적으로 선선한 밤에 고칼로리의 야식을 먹을 확률이 높다는 점이 문제다. 밤에는 부교감 신경이 작용해 영양소를 체지방으로 저장하기 때문에 몸매관리는 물론 건강에도 좋지 않다.

또 더운 날씨에 무리하게 운동을 하면 과도한 땀 배출로 전해질이 부족해지면서 어지럼증이나 저혈압, 실신 등과 같은 일사병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 운동 전 후 수분섭취 충분히 해야

운동을 할 때는 체온조절과 수분 섭취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기온이 낮은 새벽이나 밤 시간을 이용해 강도가 높지 않는 운동을 한다. 적정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수영이나 실내운동을 선택하는 것도 좋다.

야외운동을 할 때는 탈수 예방을 위해 꾸준히 수분을 보충해줘야 한다. 일반적으로 운동 2시간 전에 500㎖, 운동 중에는 20분마다 종이컵으로 1~2번, 운동 후에 다시 500㎖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 또 운동 전후 체중을 체크해 부족한 만큼의 수분을 채워줘야 한다.

/도움말 : 바노바기성형외과 반재상 원장

/최치선 기자 chisunti@metroseoul.co.kr

비타민·미네랄·수분 "한 방에 채운다"

롯데칠성음료

활력 충전음료 '하트비트' '짐승돌' 2PM 모델로 광고

롯데칠성음료(대표 이재혁)가 6인조 남성그룹 2PM을 모델로 신제품 '하트비트'의 광고를 제작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광고(https://youtu.be/d_z9M0n0pFc)는 역동적 이미지의 원조 짐승돌 2PM이 모델로 참여해 활력충전음료 하트비트의 주요 특징인 '비타민·미네랄·수분 충전·한 방에 채워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2PM의 역동적인 모습과 심장의 두근거림을 연결해 활력충전음료 이미지를 보여준다.

'내 심장은 하나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통해 하트비트 하나로 비타민·미네랄·수분 충전 3가지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2PM은 이번 광고에서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하트비트를 마시며 지치지 않는 에너지와 활동감 넘치는 모습을 표현했다. 광고 촬영 현장에서 2PM은 늦은 시간까지 지속되는 촬영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고 넘치는 에너지를 발산해 촬영장 분위기에 활력을 더했다는 후문이다.

이번에 선보이는 하트비트는 복숭아맛·자몽맛 2가지로 구성됐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

수능 D-100 "수험생 힘 내세요"

동국제약

'스콜라비타' 할인 이벤트

동국제약(대표이사 이영욱)이 수능시험 D-100일 맞아 수험생들을 응원하기 위해 '스콜라비타(Scolavita)' 파격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대학수학능력시험 100일을 앞두고 수험생들의 기억력 개선과 체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 '스콜라비타'를 한정 기간 세일 판매하는 행사다. 전국 50여개 백화점 내 '네이처스 비타민 샵' 오프라인 매장이나 온라인 쇼핑몰(www.naturesvitamin.co.kr)에서 이달 31일까지 소비자가격 8만5000원의 제품을 74% 할인 특별가 2만2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동국제약 헬스케어사업부 담당자는 "수능을 100일 남길 즈음에는 무더위와 싸우며 공부하느라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시기이므로 효율적인 건강관리가 중요하다"며 "이 시기에 스콜라비타가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되어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기를 응원한다"고 밝혔다.

스콜라비타는 하루 한 팩 3정씩 간편하게 섭취 휴대가 용이한 패키지 형태의 30포(1BOX) 단위로 구성돼 있다.

문의 : 고객상담실(080-569-8607)

/최치선 기자

식약처 "아널드 아이언 드림, 사지 마세요"

DNP 함유 식이보충제 獨서 위해식품 경고 받아

미 영화배우이자 세계적인 보디빌더인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의 이름을 딴 헬스 보충제 '아널드 아이언 드림'(사진)이 위해식품으로 경고조치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디니트로페놀'(DNP)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 약과 헬스보충제를 해외직구(인터넷 판매)로 구입하지 말아달라고 3일 당부했다.

식약처 위해정보과의 이임식 과장은 "지난달 21일 독일 연방위해평가원(BfR)은 DNP가 함유된 식이보충제 등의 섭취를 즉시 중단하라고 권고 했다"고 밝혔으며 "26일 한국정부에 이 사실을 알려왔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계속해서 "해당제품이 정식으로 국내에 수입 신고된 사례는 없었다"며 "관세청에 이 제품의 통관금지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인터넷 접속 차단을 각각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해외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다이어트, 성기능 강화, 근육 강화 등 제품의 경우 유해성분이 함유될 수 있어 구입 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해당 제품은 인터넷에서 수년전부터 판매가 이뤄져 식약처가 판매중단을 요청하기전에 이미 인터넷으로 제품을 구입한 사람들이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디니트로페놀(2,4-Dinitrophenol, DNP) 성분이 함유돼 있다. DNP 함유 식이보충제를 섭취하고 사망한 사고는 영국, 아일랜드, 독일, 노르웨이 등에서 10여건에 달한다. DNP는 1930년대까지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고 체중을 감량하는 '다이어트 약'으로 판매됐다. 그러나 섭취 후 불규칙한 심장박동, 체온상승, 탈수 등의 부작용으로 사용이 금지됐다.

이 과장은 "아직까지 국내에서 해당제품에 대한 부작용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면서 "기존 제품을 보유하고 있거나 섭취 중인 사람이 있다면 즉시 중단하고 폐기처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치선 기자

방통대, 이상진 전 교육부차관 석좌교수 임용

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직무대리 이동국 이하 방송대)는 지난 1일부터 1년간 이상진(사진) 전 교육부 차관을 프라임칼리지 석좌교수로 임용했다고 3일 밝혔다. 이상진 교수는 영남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 오리건주립대학(University of Oregon)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제23회행정고시 출신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과 외교부 주 유네스코 한국대표부 특명전권대사를 역임했다.

이동국 총장직무대리는 "이상진 교수가 지닌 교육 실무지식과 경험, 노하우가 국민의 생애주기 및 학습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는 프라임칼리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석좌교수는 앞으로 프라임칼리지에서 강의, 프로그램(교과목) 제작 참여와 자문, 홍보 및 대외협력 등의 활동을 할 예정이다.

/복현명 기자 hmbok@

star bag

'완전 미쳤네'로 컴백

걸그룹 **티아라**가 1년여 만의 신곡 '완전 미쳤네'를 4일 정오 발표한다. 브라스 사운드가 돋보이는 펑키한 댄스 곡으로 작곡가 용감한형제가 참여했다. 티아라는 마린룩 콘셉트로 시원한 무대를 선보일 계획이다.

소속사와 전속계약

방송인 **신아영**이 연예기획사 여울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여울엔터테인먼트 측은 "신아영이 예능 프로그램, 스크린, 안방극장을 넘나들며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日 팬과 특별한 시간

그룹 씨엔블루 멤버 **이종현**이 2일 도쿄 국제포럼홀에서 일본에서 데뷔 후 첫 단독 팬미팅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이종현은 다양한 이벤트와 공연 무대로 현지 팬과 적극적으로 소통했다.

새 주말극 여주인공

배우 **장서희**가 MBC 새 주말극 '엄마'에서 주인공 김윤희 역에 캐스팅됐다. 남동생들에게 마치 형 같은 누나로 부지런하면서도 문제가 생기면 정면으로 돌파하는 인물이다. 오는 9월 방송 예정이다.

데뷔 후 첫 팬미팅 개최

걸그룹 **마마무**가 데뷔 후 최초로 팬미팅을 개최한다. 마마무 소속사 레인보우브릿지월드는 3일 "마마무가 오는 23일 오후 5시 올림픽공원 우리금융아트홀에서 첫 단독 팬미팅을 연다"고 전했다.

연예인의 삶, 후회하지 않아요

영화 '미쓰 와이프' **엄정화**

엄정화(45)의 필모그래피에는 여성의 삶이 녹아있다. '싱글즈' '오로라 공주' '댄싱퀸' '몽타주' '관능의 법칙' 등 그의 대표작이 이를 잘 보여준다. 엄정화는 20대부터 40대까지 여성의 다양한 모습을 공감가게 그려내며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중요한 여배우로 자리매김했다.

오는 13일 개봉하는 '미쓰 와이프'는 그런 엄정화의 또 다른 매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다. 영화는 우연한 사고로 다른 삶을 살게 된 한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 돈과 성공에 가려진 가족의 소중함을 이야기한다. 엄정화는 성공한 변호사로 화려한 싱글 라이프를 즐기다 하루아침에 남편과 아이 둘이 있는 아줌마가 된 주인공 연우를 연기했다.

엄정화가 주부와 엄마 역할을 연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러나 '미쓰 와이프'에서는 보다 일상적인 주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웠다.

"아이들이랑 집에서 종이접기를 하는, 평범한 주부의 일상을 연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물론 연우가 완전히 생활 밀착형의 캐릭터는 아니죠. 변호사에서 아줌마가 돼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했으니까요. 연기는 큰 부담이 없었어요. 촬영을 하다 보니 연우처럼 아이들과 저녁에 같이 놀기도 하고 남편에게 잔소리도 하는 삶이 즐겁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변호사와 아줌마의 모습을 함께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다. 아직 미혼인 만큼 변호사 역할이 연기하기 더 쉬웠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엄정화는 오히려 아줌마 역할이 연기하기 편했다고 말했다. 변호사 연우는 "마음도

평범한 아줌마가 된 변호사 가족 소중함에 크게 공감해

자신에게 위로가 돼준 작품 일·생활 즐기는 여유 생겨나

닫혀 있고 어느 것에도 침범 받지 않는 여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해서 고민이 많았다.

극중 변호사 연우와 배우 엄정화 사이에는 닮은 점이 하나 있다. 일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고 있다는 점이다. "연우처럼 성공만 보고 살아왔냐고요? 아니라고는 말 못할 것 같아요. 저 역시 일을 정말 좋아해서 열심히 달려왔으니까요. 그래서 결혼이나 가족이 일보다 덜 중요하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물론 엄정화도 자신이 연예인이 안 됐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지 생각해본 적이 있다. "제천에서 사투리 쓰면서 살고 있지 않을까요? (웃음) 영화 속 아줌마 연우랑 비슷할 것 같아요. 하지만 연예인을 선택한 제 삶을 후회하지는 않아요."

엄정화가 '미쓰 와이프'를 선택한 이유는 영화가 담고 있는 주제, 그 중에서도 가족에 대한 메시지 때문이었다. 영화 후반부에서 연우가 자신이 겪은 해프닝에 감춰진 비밀을 발견하는 장면이 그렇다. 그 장면에서 연우가 흘리는 눈물에는 엄정화의 눈물도 함께 담겨 있다. 엄정화는 "아무리 성공해도 사람은 힘들면 어디든 기대고 싶어진다는 이야기가 저에게 위로를 주는 것 같았다"고 작품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나타냈다.

영화 속 연우는 또 다른 인생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여유를 갖게 된다. 엄정화도 '미쓰 와이프'를 만나 일과 함께 생활을 즐기는 여유를 얻게 됐다. "다음에는 좀 더 일상적인 모습이 있는 생활 연기를 더 해보고 싶고요. 진짜 깊고 진지한 이야기도 하고 싶고요. 무엇보다 여러 가지 모습을 지닌 여자를 앞으로도 계속 만나고 싶어요."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손진영 기자 son@

B.A.P, 전속계약 분쟁 마무리

신뢰 회복해 현 소속사로 복귀 '이례적'

그룹 B.A.P(사진)가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분쟁을 마치고 활동을 재개한다.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는 3일 "지난해 11월 26일 문제 발생 직후부터 본 사안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B.A.P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며 "당사의 끊임없는 대화 시도와 진정성 있는 노력 끝에 서로 신뢰를 회복했다. 이에 B.A.P는 2015년 8월 1일을 기해 당사로 복귀했다"고 밝혔다.

B.A.P는 앞서 지난해 11월 데뷔 이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수익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다며 전속계약무효확인과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내고 활동을 중단했다. 당시 소속사는 "수익금 정산이나 계약 내용과 관련해 위법 행위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동안 가수들이 소속사와 전속계약 문제로 분쟁을 벌일 경우 법적 다툼 끝에 결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B.A.P는 이례적으로 소속사와 합의점을 찾아 복귀하게 됐다.

TS엔터테인먼트 측은 "이유를 막론하고 일련의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을 B.A.P 멤버들과 부모님, 그리고 언제나 이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돼준 많은 팬에게 당사는 깊은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며 "더욱 세심한 배려로 B.A.P의 밝은 미래를 향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B.A.P는 2012년 걸그룹 시크릿이 소속된 TS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데뷔했다. '워리어' '대박사건' '1004' 등의 노래로 활동을 해왔다.

/장병호 기자

THE 맛있는 One샷

푸드트럭을 타고 펼치는

세상에서 가장 짜릿한! 요리배틀!

매주 목요일 밤 11시 E채널

t.cast

음악·뮤지컬·등산… 이색 영화제 온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 25개국 101편 음악영화 상영
충무로뮤지컬·울주산악영화제, 프리페스티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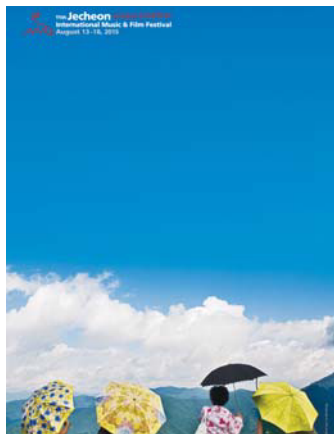
여름은 축제의 계절이다. 영화계도 여름을 맞이해 다양한 행사를 연다. 특히 올해는 이색적인 소재의 영화제들이 있어 눈길을 끈다.

제11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충청북도 제천시 청평호 일대에서 열린다. 자연과 음악, 영화를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영화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올해는 총 25개국에서 온 101편(장편 53편, 단편 48편)의 음악영화가 상영된다. 한국 최초의 여성 보컬 그룹인 김시스터즈에 대한 다큐멘터리 '다방의 푸른 꿈'이 개막작으로 선정됐다.

비틀즈를 동경한 소년들의 성장기를 담은 '비틀즈', 27세 나이에 요절한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생애를 담은 다큐멘터리 '에이미', 글램메탈의 대부인 앨리스 쿠퍼의 일대기를 다룬 '수퍼두퍼 앨리스 쿠퍼' 등이 상영된다. 이승환, 정엽, DJ DOC, 혁오 등 인기 가수들의 공연도 함께 펼쳐진다.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충무아트홀에서는 뮤지컬과 영화를 동시에 만날 수 있는 충무로뮤지컬영화제 프리페스티벌이 열린다. 내년에 열릴 제1회 충무로뮤지컬영화제 개막에 앞서 미리 열리는 행사다.

총 8개의 섹션을 통해 12편의 장편 영화 상영과 라이브 더빙쇼 공연을 선보인다. '사랑은 비를 타고' '그리스' 등 인기 뮤지컬의 원작 영화를 만날 수 있다. '겨울왕국'을 코러스와 함께 노래 부르며 관람할 수 있는 특별한 행사도 있다.

국내 최초 국제산악영화제도 열린다.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는 개최되는 울주세계산악영화제 프레페스티벌이다. 내년 1회 영화제를 준비하는 의미에서 마련된 영화제다. 전 세계에서 초청한 43편의 산악영화를 무료로 상영한다.

스카이러닝 월드 챔피언인 스페인 출신 킬리언 조넷이 해발 4000m에 이르는 마테호른 왕복 세계기록 갱신 과정을 다룬 '하늘을 달리는 사람들'이 개막작으로 상영된다. 산악 스포츠 소재 영화부터 산과 자연을 함께 다룬 영화까지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영화제 기간에 백패킹, 트래킹, 클라이밍 등 체험행사도 함께 열린다.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TV 하이라이트

헤겔의 철학적 사유의 높이

◆ KBS1 '창의 인재 프로젝트–생각의 집' 오후 11시40분

'진정한 철학하기'의 의미를 열정적으로 설파했던 서강대 철학과 최진석 교수의 강의를 모은 '철학적 사유의 높이' 편이 방송된다. 최진석 교수는 변증법으로 사유의 지평을 넓힌 헤겔의 철학에 대해 이야기한다. 과거 위대한 철학자들의 지식과 이론을 습득하고 반복하는 것이 아닌, 당대의 현실을 읽어내 우리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사유의 높이에 도달해야 함을 역설한다.

/정리=하희철 기자 bbuheng@

◆ JTBC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오후 11시

전학생의 자존심을 건 간식 배틀이 펼쳐진다. 문과 브레인 고주원과 이과 브레인 김정훈은 당구로 대결을, 엔과 강남은 알까기 대결로 간식을 쏠 벌칙자를 정한다.

◆ MBN '엄지의 제왕' 오후 11시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지켜줄 골든타임의 비밀이 밝혀진다. 단순히 병을 이기는 것을 넘어 병 이후에 찾아올 후유증까지 막는 최고의 골든타임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 tvN '집밥 백선생' 오후 9시40분

새로 합류한 B1A4 멤버 바로와 함께하는 추억의 돈가스 특집이다. 백종원은 돈가스 샌드위치부터 80년대식 스프까지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일품 레시피를 선보인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일 (화)

지상파	KBS1	KBS2	MBC	SBS	EBS1	EBS2
18시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2TV 저녁	10 생방송 오늘 저녁	00 생방송 투데이	00 톡! 톡! 보니 하니 1 (2897회) 05 출동! 슈퍼윙스 25 내 친구 아서 45 신체가 튼튼!	00 하늘 놀이터 (재) 25 Real Fun World (재) 30 헬로 코코몽 (재) 50 Real Fun World2 (재) 55 곰디와 친구들(영어더빙·한국어) (재)
19시	00 KBS 뉴스 7 30 이웃집 찰스	50 오늘부터 사랑해 (84회)	15 위대한 조강지처 (37회) 55 MBC 뉴스데스크	20 돌아온 황금복 (41회)	00 지파이터스 30 EBS 뉴스 50 극한 직업 (재)	25 꼬마 철학자 휴고(영어) (재) 35 Real Fun World3 40 꼬마 철학자 휴고(한국어) 50 몬스터 수학나라(영어) (재)
20시	25 가족을 지켜라 (61회)	30 생생정보 (2회) 55 1 대 100	55 딱 너 같은 딸 (57회)	00 SBS 8 뉴스 55 SBS 뉴스토리	40 다큐 오늘 50 세계 테마 기행	00 Real Fun World4 (재) 10 몬스터 수학나라(한국어) (재) 20 스쿨랜드–인터뷰 30 공부의 왕도 (재)
21시	00 KBS 뉴스 9		30 리얼스토리 눈		30 한국기행 50 EBS 다큐 프라임	00 문화유산 코리아(영어자막)(재) 10 EBS 스타 강사 특강
22시	00 한국인의 건강은 어떻게 변해 왔나 55 국민대합창 우리가	00 너를 기억해 (14회)	00 화정 (34회)	00 미세스캅 (2회)	45 다큐영화 길 위의 인생	00 영화로 배우는 영어 <아라비아의 로렌스 2>
23시	00 KBS 뉴스라인 40 창의인재 프로젝트 생각의 집 명강의 스페셜	10 우리동네 예체능	15 PD수첩	15 에이스	35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24시	35 독립영화관 <이것이 우리의 끝이다>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55 뮤비뱅크 2 (7회)	10 MBC 뉴스 24 20 MBC 100분 토론	35 나이트라인 40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05 지식채널e (재) 10 EBS 인문학 특강	30 K-POP으로 배우는 다문화 한국어 (재)

케이블	JTBC	tvN	올리브TV	내셔널지오그래픽	채널CGV	스포츠
18시	30 냉장고를 부탁해 (38회) (재)	20 집밥 백선생 (11회) (재)	30 2015 테이스티로드 (24회)			◆ 프로야구 (18:30) 두산 vs 롯데 (SPOTV+) 한화 vs SK (MBC SPORTS+) 삼성 vs KT (SKY SPORTS) KIA vs 넥센 (SBS SPORTS) NC vs LG (KBS N SPORTS)
19시	00 2015 동아시안컵[여자]	40 오 마이 갓 (29회) (재)	30 오늘 뭐 먹지? (63·53회)	00 나는 자연인이다 (23회)	00 무비스토커 (4회)	
20시		40 현장토크쇼 TAXI (390회)	30 유미의 방 (6회)	00 와일드 순간포착(1) (14회) 30 이것은 실화다 (10회)	10 엘렉트라	
21시	30 JTBC 뉴스룸	40 집밥 백선생 (12회)	00 올리브쇼 2015 (16회)			
22시			00 오늘 뭐 먹지? (27·23회)	00 빅데이터 마이닝 (3·4회)	00 그래버스	
23시	00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55회)	00 신분을 숨겨라 (16회)	00 2015 테이스티로드 (24회)	00 <히틀러의 메가프로젝트>나치 친위대 SS		
24시	20 냉장고를 부탁해 스페셜 (38회)	20 현장토크쇼 TAXI (390회) (재)	00 유미의 방 (6회) 30 주문을 걸어 (3회)	00 나는 자연인이다 (23회)	00 집으로 가는 길	

'커리어 그랜드슬램' 박인비, 골프여제 입증

'골프여제' 박인비가 3일(한국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의 트럼프 턴베리 리조트 에일사 코스에서 열린 리코 브리티시여자오픈(총상금 300만 달러·약 34억원) 대회 우승컵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브리티시, 집념의 역전승 LPGA 역대 7번째 대기록

태극낭자 올 20개 대회 중 역대최다 12승 '기록갱신'

'골프 여제' 박인비(27·KB금융그룹·사진)가 여자골프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박인비는 3일(한국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의 트럼프 턴베리 리조트 에일사 코스(파72·6410야드)에서 열린 리코 브리티시여자오픈(총상금 300만 달러·약 34억원)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7개와 이글 1개, 보기 2개를 묶어 7언더파 65타를 쳤다. 최종합계 12언더파 276타의 성적을 낸 박인비는 2위 고진영(20·넵스)을 3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했다. 우승 상금은 45만 달러(약 5억2000만원)다.

2008년 US오픈에서 처음 메이저 대회 우승을 차지한 박인비는 2013년에 나비스코 챔피언십과 LPGA 챔피언십, US오픈을 휩쓸었다. 이번에 브리티시오픈 우승컵까지 품에 안으면서 통산 7번째로 커리어 그랜드슬램 대기록을 세웠다.

박인비의 이날 우승으로 한국 선수들은 올해 열린 20개 대회 가운데 12승을 기록해 역대 한 시즌 한국 국적 선수 최다승 기록을 갱신했다.

박인비는 2013년과 2014년 이 대회에서 연달아 우승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긴 바 있다. 우승에 강한 의지를 내보였던 박인비의 집념이 역전 드라마를 만들어냈다.

14번 홀(파5)에서 7m 가까운 거리에서 이글 퍼트를 성공해 한꺼번에 두 타를 줄였다. 반면 13번 홀에 있던 고진영은 한 타를 잃으면서 순식간에 동률이 됐다. 고진영도 파5 홀인 14번 홀에서 반격을 노렸으나 파에 그쳤고 오히려 박인비가 16번 홀(파4)에서 한 타를 더 줄여 단독 선두로 치고 나갔다.

승부가 갈린 것은 고진영이 16번 홀에서 더블보기를 기록했을 때였다. 두 번째 샷이 그린 앞 개울로 향하면서 박인비의 커리어 그랜드 슬램 달성은 사실상 확정됐다. 고진영은 결국 보기 퍼트도 실패하면서 박인비와 3타 차로 벌어졌고 이를 다시 따라잡기에는 남은 홀이 부족했다.

박인비는 우승 확정 뒤 방송 인터뷰에서 "에비앙 챔피언십을 우승해도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달성할 수 있지만 진정한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이루려면 이 대회에서 우승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인비는 이번 우승으로 2015 롤렉스 안니카 메이저 어워드 수상자로 확정됐다. 이 상은 한 시즌 5개 메이저 대회 결과를 합산해 가장 좋은 성적을 낸 선수에게 준다. 박인비는 138점을 획득해 74점의 브리트니 린시컴(미국)과의 격차를 이미 60점 이상으로 벌렸다.

박인비는 7일 개막하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 출전을 위해 귀국길에 오른다.

/하희철 기자 hhc@metroseoul.co.kr

3일(한국시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양궁세계선수권에서 한국의 기보배(가운데)가 여자 개인전 우승을 차지한 뒤 시상대에 올라 관객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AP 연합뉴스

한국 양궁, 세계선수권대회 역대 최고 성적

리커브 부문 金 5개 중 4개 싹쓸이… 기보배 2관왕

한국 양궁 대표팀이 2015 세계양궁연맹(WA) 세계선수권대회 리커브 부문에 걸린 금메달 5개 중 4개를 휩쓸며 최종합계 금메달 6개, 동메달 3개로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뒀다. 기보배(광주시청), 김우진(청주시청), 구본찬(안동대), 김윤희는 2관왕을 차지했다.

한국은 3일(한국시간) 덴마크 코펜하겐 크리스티안스보르 광장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날 리커브 결승전에서 남자 개인·단체전, 여자 개인전, 혼성팀전 1위를 차지했다.

2012 런던 올림픽 2관왕 기보배는 여자 개인전 결승에서 린스자(대만)에 7-3으로 이겼다.

예선에서 린스자에 이어 2위를 기록했던 기보배는 결승전에서는 1, 2세트를 29-25, 27-26으로 내리 따내면서 승기를 잡았다. 이어진 3세트를 26-27로 내줬지만 4세트에서 29-29, 5세트에서 29-28을 기록하며 경기를 마무리했다.

4년 만에 세계선수권 남자 개인전 결승에 진출한 김우진은 판데르 펜 릭(네덜란드)을 6-2로 꺾고 1위를 차지했다. 김우진은 1, 2세트를 따낸 뒤 3, 4세트를 비기면서 승부를 마무리지었다. 세계선수권 남자 개인전 6연속 금메달이다.

기보배와 구본찬은 혼성팀전 결승에서 대만의 린스자-궈청웨이를 슛오프 접전 끝에 꺾었다. 8강, 4강에서 모두 슛오프 대결에서 이겼던 기보배-구본찬은 결승전 슛오프에서도 20-19로 이겼다.

구본찬·김우진·오진혁(현대제철)이 나선 남자 대표팀은 단체전 결승에서 이탈리아를 6-0으로 완파했다.

기보배·강채영(경희대)·최미선(광주여대)이 팀을 이룬 여자 대표팀은 3, 4위전에서 일본을 5-1로 가볍게 누르며 동메달을 땄다. 최미선은 여자개인전에서도 동메달을 추가했다. /하희철 기자

안세현, 여자 접영 한국신기록

100m예선서 58초24 9개월 만에 기록 갱신

한국 여자수영의 에이스 안세현(20·울산시청·사진)이 세계 무대에서 한국 기록을 갈아치웠다.

안세현은 3일(한국시간) 러시아 카잔의 카잔 아레나에서 열린 2015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경영 종목 첫날 여자 접영 100m 예선에서 58초24의 한국 신기록을 세워 준결승에 진출했다. 지난해 11월 2일 제주에서 열린 전국체육대회에서 자신이 세운 종전 한국 기록 58초33을 9개월 만에 다시 0.09초 줄였다.

안세현은 여자 접영 100m에서는 국내 최강자일 뿐만 아니라 지난해 인천 아시안게임 여자 혼계영 400m에서 대표팀 후배들과 은메달을 합작한 한국 여자 수영의 간판선수다. 지난 5월부터 SK텔레콤스포츠단의 후원으로 호주 브리즈번에서 박태환의 스승이었던 마이클 볼(호주) 코치의 지도를 받으며 이번 세계선수권대회를 준비해왔다.

안세현은 이날 역대 한국 선수로는 다섯 번째로 경영 종목 결승 진출까지 욕심냈다. 하지만 예선에서 온 힘을 쏟아부은 탓인지 오후에 열린 준결승에서는 58초44로 13위에 머물러 8명만이 나서는 결승 진출은 하지 못했다. /하희철 기자

추신수, 5경기 연속 안타

'4번 타자' 강정호 무안타

추신수(33·텍사스 레인저스)가 5경기 연속 안타를 쳤다.

추신수는 3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 주 알링턴의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벌어진 미국프로야구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홈경기에서 2번 타자 우익수로 출전해 3타수 1안타를 때리고 볼넷 1개를 얻어냈다.

지난달 28일 뉴욕 양키스와의 경기 이래 5경기 연속 안타를 친 추신수의 시즌 타율은 0.239(348타수 83안타)로 약간 올랐다.

추신수는 3회 1사 1루에 타석에 나서 풀 카운트에서 몸쪽 높게 들어온 컷 패스트볼을 잡아당겨 우익수 앞에 떨어지는 깨끗한 안타로 1, 3루 기회를 만들었다.

텍사스는 왼손 선발 투수 마르틴 페레스의 역투와 6회 터진 조시 해밀턴의 2점 홈런을 앞세워 2-1로 이겼다.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리츠)는 같은날 그레이트아메리칸볼파크에서 열린 신시내티 레즈와의 원정 경기에서 4번 타자 유격수로 출전해 4타수 무안타로 경기를 마쳤다.

피츠버그는 3-0으로 승리했다.

Korea Adversisers Association also pointed some Major Press as ‘Quasi Press’

광고주협회 ‘유사언론’에 조선 중앙 동아 매경 등도 포함

It was confirmed that several major press such as Chosun , JoongAng, Dong-A , Maeil Business Newspaper, Kyunghyang, Channel A, MBN, were included in ‘The results of the 2015 survey on Quasi Press’ which was reported by the Korea Advertisers Association (KAA).

But the KAA is not revealing the whole list of Quasi Press except for Metro Press. KAA is asserting to kick out the Quasi Press from the portal sites such as Naver and Daum, and discontinue news cooperation with the Quasi Press.

한국광고주협회가 7월1일 발표한 ‘2015 유사언론 실태조사’ 보도자료 일부. /사진합성

It is also claiming to strengthen punishment to Quasi Press and the reporters in order to eradicate ‘similar press act’ on the basis of the reseult of this research.

In turn, there are a lot of comments in regards to the reason why the KAA conducted the poll. Some say that KAA is not caring about eradicating Quasi Press, but is only interested in disparaging Metro Press which has been recently writing many critic articles about plutocrats of SamSung, Hyundai Motors, Shinsegae and others.

/김서이 기자 redsun217@

한국광고주협회가 최근 발표한 ‘2015 유사언론 실태조사 결과’원 보고서에 이른바 유사언론(사이비언론)으로 중소 인터넷 매체들 뿐아니라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동아일보·매일경제·경향신문 등 유력지와 TV조선·채널A·MBN 등 방송사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광고주협회는 막상 어느 매체가 유사언론으로 지목됐는 지에 대해서는 ‘메트로신문’을 제외하면 지금까지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광고주협회는 유사언론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네이버·다음 등 포털에서 유사언론의 퇴출과 기사 제휴 중단 ▲유사 언론행위 매체와 기자에 대한 법적 처벌 강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고주협회가 정작 사이비언론 근절에는 관심이 없고, 최근 삼성·현대차·신세계 등 재벌 비판 기사를 상대적으로 많이 취급해온 메트로신문을 폄하하고 고사시키기 위해 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7			4	5		1		
	4	6			7			
5				1		6		
3				4	9			
	8						2	
			1	2				7
		1		9				3
			2			5	6	
		9		7	5			2

4		3						1
	8			6	2			
					5	3	8	9
		1	6		3	8		
				7				
		6	9		8	4		
8	9	5	2					
			4	5			3	
7						2		5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스도쿠 정답

7	2	3	4	5	6	1	9	8
1	4	6	9	8	7	2	3	5
5	9	8	3	1	2	6	7	4
3	1	2	7	4	9	8	5	6
4	8	7	5	6	3	9	2	1
9	6	5	1	2	8	3	4	7
2	5	1	6	9	4	7	8	3
8	7	4	2	3	1	5	6	9
6	3	9	8	7	5	4	1	2

4	5	3	7	8	9	6	2	1
1	8	9	3	6	2	5	7	4
2	6	7	1	4	5	3	8	9
5	4	1	6	2	3	8	9	7
9	2	8	5	7	4	1	6	3
3	7	6	9	1	8	4	5	2
8	9	5	2	3	1	7	4	6
6	1	2	4	5	7	9	3	8
7	3	4	8	9	6	2	1	5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진급 기다릴지 다른일 찾을지 고민입니다
회사 다니는 것도 다행… 더욱 정진하시길

비전2 남자 62년 3월 27일 양력 22시

Q 메트로에 ‘사주 속으로’를 보며 인생 삶의 축소판을 보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이제는 저의 차례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대구에 있는 중견기업 섬유회사에서 영업부의 차장으로 지내고 있는데 올해 진급이 될 수 있는지요. 회사의 형편이 그리 좋지를 않고 영업활동도 점점 하기가 힘이 듭니다.

나이도 있고 다람쥐 쳇바퀴 돌 듯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다보니 싫증도 나고 장래에 비전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학생이라 한 창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항상 생활에 시달립니다.

진급만 바라볼 수 없고 뾰족 한 방안도 없습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A 운명에 대해 국어 대사전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존망이나 생사에 대한 처지 인간을 포함한 우주의 일체를 지배한다고 생각되는 운명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어찌 할 수 없는 초인간적인 힘을 의미한다.

맹자도 사람이 애써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것이 하늘의 일이고 오라고 부르지 않아도 오는 것이 운명 이라며 운명을 정해진 것으로 정의 했습니다.

어떤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는 먼저 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흔히들 하는 말로 운칠기삼(運七氣三)이란 말과 호랑이는 피할 수 있어도 사주팔자는 피할 수 없다고들 합니다.

이것의 진정한 의미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당하기보다는 운이 좋거나 나쁘건 간에 그것에 대응하여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주8자에서 오행이 골고루 배분되어 있는 것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기본적으로 모나지 않고 무난한 것이 보통인데 어느 한쪽 오행으로 치우치거나 아예 없을 때 운에서 흉함이 오면 틀림없이 나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잠시 설명해본다면 지금도 천간(天干)에서 충살을 당하고 있고 좋은 오행이 묶여 있어 힘을 못 쓰는 형국인데 다시 원인을 찾아본다면 승진을 염려하기 보다는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는 것만이라도 다행으로 여기고 더욱 정진하고 열심히 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경제문제에 시달린다 해도 운이 풀릴 방도가 없을 때는 가만히 있는 것이 상책이고 그래도 현재에 만족해야 합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남에게 베풀고 보시공덕(布施功德)해야 합니다.

상황분석을 잘하여 돈이 없으면 업무적인 면에서라도 누군가에게 보탬이 되도록 하십시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8월 4일 (음 6월 20일) 힐링운세(www.healingunse.com) 060-800-8877

48년생 도의에 어긋나는 행동은 하지 마세요. **60년생** 날로 번창하니 재물과 명예가 늘어납니다. **72년생** 가는 곳마다 이로운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84년생** 시간활용을 잘 할 때 입니다.

49년생 귀중한 물건을 분실할 실물수가 있습니다. **61년생** 여행은 길하지 못합니다. **73년생** 현 상태에 만족하고 더욱 노력하세요. **85년생** 도처에 재물이 있으니 나가면 얻을것입니다.

50년생 주위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세요. **62년생** 어려움이 닥쳐도 능히 이겨 나갈 것입니다. **74년생** 일에 진척을 살피며 천천히 진행하세요. **86년생** 서남 쪽이 길방입니다.

51년생 동쪽 물가로 가지 마세요. **63년생** 모든 것은 시와 때가 있는 법입니다. **75년생** 노력한 만큼 운이 따르지 않습니다. **87년생** 오늘 하루 쉬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52년생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64년생** 매사 신중하세요. **76년생**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습니다. **88년생**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속은 모른다 했습니다.

53년생 늦게 이루어지니 조급해 하지 마세요. **65년생** 현실에서 과감히 벗어나세요. **77년생**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는 법입니다. **89년생** 안정을 취하며 조금 여유를 갖는게 좋습니다.

54년생 작은 일에 만족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66년생** 거래를 이루려면 상대를 알아야 합니다. **78년생** 일을 크게 벌이지 마세요. **90년생** 오늘은 심신이 피곤합니다.

55년생 새로운 계획이 필요할 때 입니다. **67년생** 동남 쪽이 길방입니다. **79년생** 성실하면 하늘이 도울것이니 노력하고 기다려 보세요. **91년생**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집니다.

56년생 조심 또 조심하세요. **68년생**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인 다면 가히 이롭고 좋을 것입니다. **80년생** 뜻밖의 제안을 받게 됩니다. **92년생** 배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열심히 하세요.

57년생 시기가 좋습니다. **69년생** 발전 일로에 있으니 걱정마세요. **81년생** 불리하게 전개되니 상대방과 타협하세요. **93년생** 일이 잘 풀려 나가니 크게 성공합니다.

58년생 과음과식을 조심하세요. **70년생** 사업확장은 하지 마세요. **82년생** 집 안에 좋은 일이 생깁니다. **94년생** 주변 사람들의 말을 잘 들으면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59년생 힘든 고생을 합니다. **71년생** 주변에 도움되는 사람이라곤 한명도 없습니다. **83년생** 두가지 소망이 모두 이루어 지길 바라는 것은 무리입니다. **95년생**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생활하세요.

저작권 표시문구를 둘러싼 이상한 분쟁

나는 20년 전 Ronald Dunn의 책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출판한 적이 있다. 계약상 내가 번역저작권자였다. 20년이 지난 지금 미국에 사는 내 친구가 번역서를 한국에서 출간하려고 한다.

번역출판계약서에는 번역저작권이 내 친구에게 있다고 되어 있다. 그래서 내 친구는 번역저작권 표시 문구에 자기 이름이 들어가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다시 말하면 '한국어판저작권은 OOO에게 있습니다'라는 문구에 자기 이름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한 것이다. 자기가 번역저작권자이니까 말이다.

그런데 출판사는 난감해 하면서 그렇게 못한다고 하였다. 대신 '관행'대로 'OOO출판사에게 한국어판저작권이 있다'는 표시가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계약상 번역저작권은 번역자에게 있다고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에 이 사실을 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명한 것이다. 번역자를 저작권자라고 표시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출판사가 내 친구의 저작권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출판사의 주장은 번역자가 저작권자임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저작권표시문구에는 출판사가 저작권자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저작권자는 번역자인데 왜 출판사가 저작권자로 표시되어야 할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원본의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지만 번역본의 저작권은 출판사에 귀속한다는 구조 자체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친구는 책에 자신이 저작권자로 표시되지 않으면 번역출판계약서를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저작권자'라고 설명하고 다녀야 하느냐고 반문한다.

한국에서 출판된 번역서 중에서 번역자에게 저작권이 있다는 문구를 사용한 책도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번역자를 저작권자로 표시하지 않고 "한국어판저작권은 OOO출판사에게 있다"고 표시하고 있는 것 같다. 나도 몰랐는데 내가 20년 전에 번역한 책도 그렇게 되어 있다.

외국의 경우는 좀 다른 것 같다. 노르웨이의 유명한 범죄소설 저자인 Jo Nesbø의 경우 영문판 'Phantom'이라는 책을 출판함에 있어 번역자를 번역저작권자라고 책에 표시하고 있다. 'Translation copyright @ 2012 by Don Bartlett'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Nesbø의 다른 책도 마찬가지이다. '

한국의 소설을 영문으로 번역 출판한 경우 번역자를 저작권자로 표시해 주는 많은 사례들이 발견되었다.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의 영문판인 'Please Look After Mom'에서도 영문번역저작권이 번역자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Translation copyright @ 2011 by Chi-Young Kim'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그 외에 신경숙의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의 영문판 'I'll Be Right There'도 번역자를 번역저작권자로 표시하고 있다.

김영하의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의 영문판 'I Have the Right to Destroy Myself'도, 김영하의 '검은 꽃'의 영문판 'Black Flower'도 동일하다.

번역출판을 위해서 번역자와 출판권설정계약을 하는 경우 번역본에 대한 저작권은 번역자에게 있고, 출판권은 출판사가 가지는 것이다. 저작권자인 번역자가 자신을 저작권자로 표시해 달라고 했을 때에는 출판사가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어 보인다.

번역은 창작만큼이나 중요하다. 이제는 이 관행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삼성-LG 스마트폰, 스펙·마케팅 경쟁만으로는 안 된다

기자 수첩

조한진 <산업부 기자>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이 울상이다. 시장에서 설 자리를 점차 잃어가면서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 스마트폰은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미국 애플에, 중저가 시장에서는 중국 화웨이·샤오미에 밀리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최근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마케팅비용 상승'과 '시장 여건' 등을 스마트폰 사업 부진의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나 비슷한 환경 속에서 해외 경쟁사들은 오히려시장 지배력을 확대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스마트폰 경쟁력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전략형 스마트폰을 출시할 때 마다 사양 경쟁을 벌였다. 화면과 카메라, 어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등에 첨단 기술을 적용했다며 자화자찬을 늘어놓았다. '최초' '최고' 등의 수식어도 아낌없이 붙이며 우수성도 강조했다.

하지만 시장흐름은 더 이상 하드웨어의 경쟁우위만으로는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기 어렵다. 시장이 상향평준화 되면서 비슷한 사양의 제품이 눈 깜짝할 새 쏟아지고 있다.

시장도 삼성전자와 LG전자에 유리한 상황이 아니다. 지지층이 엷은 양사는 애플과 같은 고가 전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중·저가폰 시장에서는 중국 업체들과의 가격경쟁에서 뒤지고 있다. 어중간한 위치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휴대폰 사업 전반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소비자 가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소통의 폭을 넓혀 소비자들의 요구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아무리 혁신적인 제품과 기술이라도 시장이 외면 하면 살아남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여기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휴대폰 사업이 정체 될 경우 더 큰 시련에 맞닥뜨릴 수도 있다. 양사가 과거 휴대폰 시장의 '거인'으로 군림했다가 무너진 노키아와 모토롤라의 발자취를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 노키아와 모토롤라가 몰락하는 데 걸린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다.

[바로잡습니다] "檢, '금품수수 의혹' 박기춘 소환 예정" 기사

김성태 의원 사진으로 잘못 게재

메트로신문은 2015년 7월 10일자 4면에 '檢, '금품수수 의혹' 박기춘 소환 예정'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 기사에 관련 사진을 싣는 과정에서 박기춘 의원과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싣는다는 것이 편집상의 실수로 박기춘 의원 얼굴은 빠지고 본 기사와 무관한 김성태 의원 얼굴만 지면에 실리는 결과가 되었다는 것을 2015년 8월 3일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이 기사와 김성태 의원은 아무런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점을 밝히고, 좋은 내용도 아닌 기사에 얼굴이 노출된 김 의원에게는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社說

경제정책에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에는 '오너리스크'라는 말이 회자되어왔다. 우리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재벌의 신인도가 오너 일가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는 현실을 압축한 단어이다.

재벌총수나 그 가족들이 상식 밖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기업 경영까지 어렵게 하는 사태를 두고 하는 말이다. 재벌총수 일가가 다방면으로 물의를 일으키면서 우리 사회의 법상식과 경제적 합리성을 질식시키는 일이 너무나 많았기에 생겨난 조어이다.

오너리스크는 특히 재벌 창업자의 2세와 3세에게 경영권이 넘어가면서 극심해졌다. 창업자는 오랫동안 힘겨운 노력을 기울여 기업을 일구었지만, 2세와 3세들은 대체로 특별한 노고 없이 경영권을 차지했다.

이들은 의무는 무시하고 권리만 앞세운 나머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기업경영조차 어렵게 했던 것이다. 해외에서도 웃음거리가 되고 '코리안 디스카운트'의 중요한 요인이 되어 왔다.

현대그룹 2세들이 벌인 '형제의 난'을 비롯한 형제간의 분쟁은 이제 너무나 흔한 일이 되었다. 올 들어서도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사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무리한 합병 등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지금까지 발생한 사건들을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다. 그러니 현재 진행중인 롯데가의 경영권 분쟁도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 오너리스크는 무엇보다 재벌그룹의 폐쇄적인 지배구조 때문에 일어난다. 더욱이 재벌이 투자만 하면 무조건 좋다고 비호해온 정부의 경제정책도 한몫 한다.

말하자면 정부의 근시안적 경제정책에 기생해 커진 것이다. 지난번 대통령선거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민주화 논의가 한때 활발했지만, 이젠 옛 추억처럼 가물가물하다.

박근혜 정부가 지금 경제살리기를 위해 나름대로 애쓰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정책의 기조를 근본적으로 되돌아볼 때가 되었다. 전근대적 재벌의 오너리스크에 휘둘리는 경제체질로는 더 이상 곤란하다. 경제정책과 운용에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필요하다.

자식에게 증여한 부동산 다시 돌려받고 싶다면?

생활 법률

최근 부모가 자식에게 대가없이 증여(증여자가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수증자인 상대방이 그것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해 준 부동산을 되돌려 받으려는 사례가 늘고 있다.

부모를 부양하는 조건으로 이전등기를 해줬는데, 자식들의 태도가 옛날 같지 않아 괘씸하기 때문이다. 이 부동산을 전부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

위 경우는 자식이 부양의무를 이행(이행이란 채권의 목적인 의무자의 행위)하기로 한 약속을 저버린 사례다. 이와 같이 자식이 부모에 대한 일정한 망은(은혜를 저버리는 행위)행위가 있을 때 부모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즉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와 증여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가능한 것이다.

다만 망은행위 해제권은 해제권자인 부모가 망은행위가 있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거나, 부모가 자식에게 용서 의사를 표시하면 소멸한다. 또 자식이 부모의 이 같은 처사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되레 법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부모가 계약상 부동산의 일부를 이행한 부분이 있을 경우 자식의 망은행위를 사유로 계약을 해제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미 소유권을 이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증여와는 별도로 자식이 부양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부모는 자식을 상대로 부양료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홍원 기자 hong@

배곧이 숨겨둔 **투자 보물상자**가 열린다!

3천만원 투자로

2룸+거실1을 산다! 월70만원을 번다!

ROYAL PALACE

45.7만명 산업단지, 서울대 임대수요

저비용관리비 지역 냉·난방 시스템적용

중도금 60% 무이자

화재위험無 LG하우시스 시공

층간소음 소닉스시스템 시공

전세대 3M층고 LED조명

2 in 1 테라하우스 특화세대

입지 엘리트	송도신도시, 인천논현, 송산 그린시티를 잇는 서해안개발의 미래비전 한가운데 위치 45만명 시흥중심개발지, 단지 인근 7만평 배곧중앙공원과 6km수변공원의 힐링환경
생활 엘리트	단지 인근 서울대 이전(병원 포함), 신세계아울렛, 복합쇼핑몰, 롯데마트 등 입점 초교5, 중학교2, 고교2 인접(일부 서울대 교육지원), 소방서, 경찰서, 우체국 입점
교통 엘리트	4호선 오이도역 1km, 수인선 월곶역 3km 인접, 서해안로-군자로 및 월곶대교 확장 제3경인고속도로(정왕IC), 영동고속도로(월곶IC), 서해안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인접
수요 엘리트	시화·반월공단, 남동공단 근로자 약 38만 여명 근로자가 집중하는 풍부한 수요 배곧신도시 서울대, 아울렛 종사자 약 7280여 명, 시화MTV 약 7만여 명 고용창출

한국경제
1920년 3월 5일 창간
2015년 4월 7일 화요일
시흥 배곧, 교육특구로
서울대가 선택한 배곧!
경기도·서울대 협약 체결
2015년 4월 6일 발표

| 청약방법 | ■입금계좌 : 기업 021-644-6661 ■청약금 : 300만원 ■예금주 : (주)로얄

문 의 전 화

02)6334-9395